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진대방전>의 전고 수용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해정

2022년 2월



<진대방전>의 전고 수용 연구

지도교수 강 문 중

장 해 정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장해정의 문학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하 남 준



위 원

김 등 문



위 원

강 문 중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12월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Precedents of
<JinDaebang-jeon>

Hai-Qing Jiang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Moom-J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21.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ang, Moom Jong, prof.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국문 초록>

I. 서론	1
II. <진대방전>의 서지적 고찰과 전고의 수용	6
1. 이본 현황과 장서각 36장본의 형태적 특징	6
2. <진대방전>에 수용된 전고 정리	15
III. <진대방전> 전고 수용 양상	23
1. 재판, 서사 진행의 방향 제시	24
2. 현모(賢母), 부덕(婦德)의 전범을 통한 자질 향상	27
3. 형제애(兄弟愛)·양처(良妻), 극단적 조건을 통한 효행 강조	41
4. 효자(孝子), 맹목적 성격을 통한 교육적 효과 제시	48
IV. <진대방전> 전고 수용 양상의 의미	61
V. 결론	66
참고 문헌	68
부록	
장서각 소장 36장본 <진대방전> 원문	71
<Abstract>	

표 차례

<표1> [<진대방전> 이본] 7

<표2> <진대방전> 주요 이본의 활용 전고 17

<표3> 장서각 36장본에 수용 전고 22

<그림1> 장서각 36장본 표지·간지·본문 첫 페이지 14

<국문 초록>

<진대방전>의 이본 현황은 필사본 150종, 경판본 7종, 안성판본 2종, 확인되지 않은 방각본 3종, 구활자본 10종, 한문 필사본 3종 등 총 175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중에 이본 형성 시기가 가장 빠르면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본이 장서각 36장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이본의 형성 시기가 1857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작품의 창작 열대를 19세기 전반을 전후한 시기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서각 36장본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이 이본을 통해 <진대방전>에 수용된 중국 고사는 현모 관련 9건, 형제간 우애 관련 3건, 양처 관련 4건, 효 관련 9건 등 총 25건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진대방전>의 이본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경판 36장본, 경판 28장본, 안성판 16장본, 신구서림에서 출판한 구활자본을 대상으로 수용된 고사를 전수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장서각 소장 36장본은 다른 이본들에 비해 모친의 훈계를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진대방의 훈계인 경우 조사 대상이었던 다른 이본들에 비해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서각 36장본인 경우 서사의 내용 중에 모친 훈계에 자강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대방전>의 전고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한 결과 공자와 노왕의 사례를 통해 불효에 대한 법률적 처벌보다는 훈계와 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냈고, 이 고사의 수용 양상을 통해 작품 전체의 서사 진행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 9건의 현모 관련 고사의 수용은 가부장적 시선을 통해 가족간의 갈등과 자식의 불효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전적으로 현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여성에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형제애(兄弟愛) 관련 고사의 수용 양상은 가정불화의 문제에 큰 비중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9건의 효 관련 고사와 4건의 양처(良妻) 관련 고사의 수용을 통해 가정불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현모 역할의 부재와 더불어 불효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가정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역시 현모의 역할 회복과 효의 실천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I. 서론

이 연구는 한글 필사본 <진대방전>을 중심으로 소설 속에 수용된 중국 고전 전고를 정리하여 중국의 원전 전고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전소설 <진대방전>의 전고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대방전>의 이본은 다양한 형태뿐만 아니라 종류와 양 역시 상당하다. 한글 필사본·한문본·방각본·구활자본 등을 비롯하여 한문본 필사본까지 모두 존재한다. 필자는 가장 대표적인 한글 필사본 장서각 소장 36장본 <진대방전>¹⁾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본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본을 중심으로 작품에 수용된 중국 고전 전고를 정리한 후 각각에 대응하는 중국 원전 고전 전고 비교를 통하여 수용 양상을 고찰한 후 서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진대방전>은 가정불화와 가족간의 소송을 소재로 한 윤리소설이다. 줄거리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나라 시절에 진대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친을 일찍 여윈 방탕하게 지내면서 모친에 효도를 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모친에게 분가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다. 대방의 모친은 부득이하게 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방은 분가한 후 더욱 무도해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사치스럽게 지냈다. 어느 날 대방의 모친은 대방과 며느리의 못된 행실을 참을 수 없어서 대방의 집으로 찾아갔다. 대방이 외출 중이어서 모친은 며느리를 혼계하는데, 대방의 아내는 시어머니의 혼계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밖에서 돌아온 대방에게 시어머니가 대방과 자신을 무례하고 무도하다고 꾸짖었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관가에 고발하여 죽이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아내의 말을 들은 대방은 매우 화를 내면서 모친을 찾아가 심하게 따졌다. 이에 대방의 모친은 무례한 대방 부부의 언행에 더욱 분노하여 결국 아들 부부를 불효하다는 죄목으로 관가에 고발하

1) 이하 장서각 36장본으로 표기.

였다. 이에 고을의 태수였던 김박은 대방의 가족 상황을 보고 매우 놀라서 그들의 가족을 모두 관가로 불러 들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현모(賢母) 관련 중국 고사를 통하여 대방의 모친을 가르쳤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방과 대방의 동생에게 형제의 의를 가르쳤고, 세 번째로 대방의 아내를 훌륭한 아내와 관련된 중국의 고사를 통하여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같은 방법으로 대방에게 훌륭한 아들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등을 가르쳤다. 태수의 훈계를 들은 대방 가족들은 크게 깨달아 모두 개과천선하였다. 그 후 대방의 일이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왕은 대방을 불러 벼슬을 주었다. 이후 대방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한 <진대방전>을 대상으로 근대적 학문에서 분야에서 최초의 연구는 서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모리스꾸랑(Maurice Courant)은 1890년 대한제국으로 부임한 외교관이었던 빅토르 콜랭드 뿔랑시(Victor Collin de Plancy)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조언과 주한 프랑스 공사관에서 근무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서지(韓國書誌)>를 정리하기 시작하여 1901년에 마지막 권을 출판하였다. 이 작업 중 792번을 달고 소개된 문헌이 바로 <진대방전>이다. 꾸랑은 간략한 형태서지를 제시한 후 이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이 이본의 뒤에 붙은 ‘니훈제스 2장’을 소개하였다.²⁾

이후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공안소설류를 다루면서 <진대방전(陳大方傳)>을 제시하였다. 그는 대방의 모친이 자식 부부를 관에 고발하고 그 결과 재판관을 받는 과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일반 계급의 실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규정하였다.³⁾ 정주동은 <진대방전>이 가지는 강한 교훈적 성격 때문에 이 소설을 윤리소설로 분류하였다.⁴⁾ 남성우(南星祐)는 <심청전>·<적성의전>과 <진대방전>을 중심으로 고전소설에 나타난 ‘효’의 이념과 양상을 다루면서 <진대방전>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그는 <심청전>과 <적성의전>을 함께 비교하

2) 모리스 꾸랑 원저, 李姬載 번역(1994), 『韓國書誌』, 一潮閣, 275~276쪽. 서지학 분야에서는 스킬린드가 9편의 이본에 관한 형태서지적 특징을 정리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스킬린드(W.E.Skillend)(1968), 『Koaed Sosol: A Surver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古代小說』, London: Unwin Brotjers, 209~210쪽.

3) 김태준(1939),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88~190쪽.

4) 정주동(1966),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287쪽.

면서 <진대방전>에 나타난 효는 탕자가 부모와 형제간의 갈등 중에서 개과천선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특히 주인공 진대방이 가정질서 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고귀하게 평가하였다.⁵⁾

이태문의 연구는 <진대방전>중 나타나는 윤리의식에 집중하였다. <진대방전>에 나타나는 불효 행위와 가족 갈등은 대방 가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조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태수가 훈계를 통해 대방 가족을 개과천선시키는 장면은 지배계급들이 훌륭한 모자(母子)·열녀(烈女)·효부(孝婦) 등의 이야기를 통해 민중들을 교화하고자 했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즉 <진대방전>의 윤리적·교훈적 성격을 강조하였다.⁶⁾

조도현의 연구에서는 소설적 흥미보다는 윤리적 교훈을 전달하려는 목적성을 더욱 주목하였다. 남존여비 사상, 자식 교육, 부모 봉양, 남편을 섬기는 도리 등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실천윤리적 시각에서 효라는 주제의식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전파와 민중들을 대상으로 용이한 윤리적 교화에 주목하였다.⁷⁾

신태수는 『삼강행실도』 <효자편>과 <진대방전>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영향관계가 보이지만, 이 둘은 서사의 성격과 진행 방향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효자편>은 매우 이념지향적이다. 특히 그림과 효행담이 개인의 욕망과 신체적 고통을 행복한 환상으로 전환시킨다. 반면 <진대방전>은 매우 현실지향적이다. 이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현실적 욕망과 이념적 욕망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개인주의와 공리주의가 경쟁한다. 뿐만 아니라 두 작품에 등장하는 효의식 역시 차이가 있는데, <효자편>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진대방전>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보았다.⁸⁾

강연임은 <진대방전>의 교육 텍스트적 구조와 특징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는 이 소설은 반 데이크의 구조⁹⁾에 부합하여 소설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

5) 南星祐(1983), 「古代小説에 나타난 孝의 研究」,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42~51쪽.

6) 이태문(1998), 「윤리 의식의 중세적 형상화: 진대방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7) 조도현(2012), 「<진대방전>의 윤리교화적 실상과 의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5~49쪽.

8) 신태수(2014), 「<三綱行實圖>효자편과 <진대방전>의 거리」, 우리말글학회, 189쪽.

9) 고영근(2011), 『텍스트 과학』, 집문당. 고영근의 설명을 참고하면, 반데이크의 서사텍스트 구조는 '이야기'와 '모럴'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이야기 속에 줄거리(에피소드의 결합)와 그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육적 효과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태수가 진대방 가족 간의 갈등을 적절한 훈화 내용을 들어 교육하고,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통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을 밝힌다. 태수의 훈계를 들은 후 대방 가족들이 개과천선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기술하여 독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주었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윤리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교육자료로 활 수 있는 텍스트라는 것이다.¹⁰⁾

이처럼 <진대방전>의 주제와 서사적 특징 그리고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주목할 만한 분야가 이본(異本) 연구이다. <진대방전>의 이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송성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이 연구에서 한글필사본 하버드 33장본·하버드 57장본, 방각본 김동욱 소장 16장본, 김동욱 소장 36장본 등을 대상으로 변이과정을 검토하였으며¹¹⁾, 이창현은 박사학위논문들을 통하여 판본 <진대방전>을 고찰하면서 가장 먼저 형성된 이본이 36장본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¹²⁾ 조재현은 <진대방전>의 초기 형태를 <임시각적>과 <정대광사적>을 비교하면서 추정한 바 있다.¹³⁾ 특히 박은정은 <진대방전>의 이본 형성 동인을 ‘고사의 제시를 통한 개별적 훈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두고 있다. 즉, 독자들이 필사 과정에서 인용한 고사나 내용 등을 자신의 기대치에 맞게 자유롭게 변이할 수 있다는 말이다.¹⁴⁾ 이러한 지적은 일정 정도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진대방전>은 조동일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까지 약 113종의 이본이 보고되었다.¹⁵⁾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진대방전>의 소설 유형 분류, 이본연구, 효 중심의 주제의식, 지배계급의 교화의식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난 교훈적 성격 및 교육적 활용 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집중되었다. 그러나 <진대방전>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고사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 분야는 <진대방전>의 주제의식과 서사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필

10) 강연임(2019), 「<진대방전>의 교육 텍스트적 구조와 특징」,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9, 337~338쪽.

11) 송성욱(1994), 「<진대방전> 연구」, 『공사논문집』 35, 공군사관학교.

12) 이창현(2000),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13) 조재연(1999), 「<진대방전 이본 연구」, 『국민어문학』 7,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14) 박은정(2005), 「<진대방전>에 나타난 이념의 위상과 이본 생성 동인」, 한민족어문학회.

15) 조동일(2001), 『소설의 사회사 비교』 2, 지식산업사, 119~127쪽.

자는 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01년 이후로 더 많은 이본들이 출현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연구 대상의 현황을 정리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장서각 소장 한글 필사본 36장본을 대상으로 <진대방전>에 수용된 중국 전고를 전수조사하여 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진대방전>에 수용된 전고의 양상과 중국 원전에 나타난 전고를 비교 분석하여 그 서사적 의미를 고찰한다. 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진대방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고 작품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진대방전>의 서지적 고찰과 전고의 수용

1. 이본 현황과 장서각 36장본의 형태적 특징

<진대방전>은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 한문 필사본 등 대부분 형태의 이본을 갖고 있다. 2001년 조동일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까지 조사된 고전소설의 종류가 858종이고 이본의 수가 50종 이상인 작품은 36편이다. 그 중 <진대방전>의 이본이 15위에 있으며, 국문 필사본 113종과 국문 방각본 11종 그리고 국문 활자본 8종과 한문 필사본 1종이 보고 되었다.¹⁶⁾

이후 조희웅이 정리한 『고전소설 이본목록』¹⁷⁾에 더하여 2006년에 『고전소설 연구보정』¹⁸⁾을 통해 추가 이본이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74개의 국내 기관과 48개의 해외 기관을 합친 총 122개 기관¹⁹⁾으로 구성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총 46만 8천 건의 고서

16) 조동일(2001), 『소설의 사회사 비교』 2, 지식사업사, 119~127쪽.

17) 조희웅(1999), 「고전소설 이본목록」, 集文堂.

18) 조희웅(2006), 「고전소설 연구보정 下」, 박이정.

19)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붙일 것이다. (사)나라얼연
구소,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도서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경기대학교 도서관, 경기성남
교육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
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
관 고문헌과(수탁),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규
남박물관, 남산도서관, 남양홍씨 정효공파(남창군), 남평문씨 인수문고,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
서관,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전
가톨릭대학도서관, 독락당,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덕여자대
학교 도서관, 동신대학교 도서관, 동아대학교 한림도서관, 명재 윤증 종가, 모덕사, 민족문화발
전연구소 한알, 밀양박씨 규정공파(박진철), 보성 남평문씨, 부경대학교 도서관, 부산광역시 시
민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안교육문화회관, 사우당종택, 사천목씨종친회 유물관, 서울대학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자료실,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소수박물관, 송광사 정보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송실대
학교 도서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영남대학교 도서관, 영산대학교 도서
관, 용인대학교 중앙도서관, 용화사 묵담유물관자료실, 울산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도
서관, 전북대학교 도서관,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립완산도서관, 제주대
학교 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종로도서관,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춘호재,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
서관,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자료실, 한밭도서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화성시

관련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진대방전> 이본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진대방전> 이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대상을 결정하는 데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까지 보고된 <진대방전> 이본의 현황을 ‘표제·소장처·권수·장수·기타’ 등을 카테고리 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진대방전> 이본]

구분	표제	소장처	권수	장수	비 고(기타)
필사본					
1	김시각전 ²⁰⁾	李鉉國	1		
2	디방전 大方傳	단국대	1	19	丁未元月十六日騰書
3	대방전	단국대	1	33	
4	디방전 大方傳	단국대	1	40	을히연...시작
5	디방전	단국대	1		
6	진디방전	단국대	1	45	壬午
7	陳大房傳	단국대	1	31	隆熙六年壬子[1912]元月日辛亥 陰十月十三日湖精舍畢
8	진디방전	단국대	1	36	세지계축추칠월삼일갑진의화암은 서하노라
9	陳大房傳	단국대	1	14	

역사박물관, The British Library(영국 국립도서관), 中國上海圖書館, 中國北京大學校圖書館, 中國國家圖書館, 中國復旦大學圖書館, 中國浙江大學校圖書館(질강대학교도서관), 中國浙江省圖書館, 中國雲南大學校圖書館, 日本今西龍文庫(天理大學), 日本內閣文庫(國立公文書館),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日本大谷大學圖書館, 日本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日本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日本學習院大學圖書館, 日本宮內廳書陵部, 日本尊敬閣文庫, 日本對馬歷史民俗資料館, 日本小倉文庫(東京大學), 日本岩瀨文庫(西尾市立圖書館), 日本成篋堂文庫, 日本早稻田大學圖書館, 日本杏雨書屋(三木榮文庫), 日本東京大學總合圖書館, 日本東北大學圖書館, 日本東洋文庫, 日本河合文庫(京都大學圖書館), 日本筑波大學附屬圖書館, 日本蓬左文庫(名古屋市 教育委員會 蓬左文庫), 日本阿川文庫(東京大學), 日本靜嘉堂文庫, 日本駒澤大學圖書館, 日本龍谷大學圖書館, 臺灣國家圖書館, 遼寧省圖書館, 러시아 국립도서관(Russian State Library),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UC Berkeley Library), 미국 브린모어칼리지 도서관(Bryn Mawr College Library),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Yale University Library),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Columbia University Library),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도서관(Claremont Colleges Library),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도서관(Princeton University Library), 미국 하버드대학엔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 미국 하와이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Library),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도서관(Toronto University Library),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E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도서관.

20) 목록을 제외한 실물이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장수’를 기입할 수 없었음. 이하 ‘장수’ 표시

구분	표제	소장처	권수	장수	비 고(기타)
10	陳大房傳	단국대	1		낙장
11	陳大房傳	단국대	1	45	
12	진디방전	단국대	1	50	
13	진디방전 권지단	단국대	1	37	무오십이월초이일종필나라
14	진디방전	단국대	1	35	을뫼구월열사흔날등서건필
15	진디방전 秦大方傳	단국대	1	16	丙申
16	딘디방전	단국대	1	101	무인정월…단서
17	딘디방전 진디방전 陳大方傳	단국대	1	53	슈폭간○(數幅簡規) 무인중춘하순이월
18	진디방전 陳大鳳傳	단국대	1	21	정스연월…필서호노라
19	진디방전	단국대	1	63	
20	딘디방전	단국대	1	38	
21	陳大方傳	단국대	1	31	기축오월십삼일등서라
22	진대방전	단국대	1		乙酉 ?
23	진디방전	단국대	1		
24	진대방전	단국대	1		
25	진대방전	단국대	1		乙酉 ?
26	진디방전	단국대	1		癸酉
27	진대방전	단국대	1	27	戊午 무오십일월 이십삼일 등서
28	진대방전	단국대	1	37	癸丑
29	진대방전 陳大房傳	단국대	1	50	光陽 德洞 書
30	진[대]방전 陳大方傳	단국대		21	
31	진[대]방전	단국대	1	48	
32	陳大房傳	단국대	1	34	卷末: 辛亥陰十月十三日 립湖精舍畢
33	陳大房傳	단국대	31		낙장
34	진대방전	단국대	1	47	낙장
35	진대방전	단국대	1	29	附: 진대방전 해설 寫記: 을유 삼월 엽일서
36	진대방전	단국대	1	40	낙장
37	진대방전	단국대	1	38	
38	大方傳	단국대	1	19	寫記: 丁未元月十六日膳書
39	진디방전	단국대	1	56	낙장
40	진디방전 陳大方傳	단국대	1	46	卷末: 歲在甲辰四月日抄 鶴天書
41	대방전 陳大方傳	한중연	1	35	함풍칠년[1857] 정협곡공친필
42	진디방전	한중연	1	28	
43	진대방전	한중연	1	28	

구분	표제	소장처	권수	장수	비 고(기타)
44	진대방전	한중연	1	35	
45	陳大方傳 진디방전	한국학중앙연 구원	1	36	咸豐七年(1857)정협곡공친필
46	大房傳	홍윤표	1	38	이두 혼용, 辛卯十二月二十三日始騰
47	진디방전	홍윤표	1	47	[표지]소화삼년[1928]. 丁卯十二月 月為始戊辰正月十九日終, 光陽郡津上面永坪里抄筆
48	陳大房傳	홍윤표	1	40	丙3十一月日封, 전후 낙장
49	임시각전	김광순	1	51	
50	넘시각전	김광순	1	27	
51	진디방전	김광순	1	21	
52	진디방전	김광순	1	37	권말 낙장
53	진디방전나라 秦大房傳	김광순	1	37	표지 계축년맹춘
54	진디방전나라 秦大房傳	김광순	1	38	
55	정디광이사적 권지초	박순호	1	48	미완
56	진디방전 권지단	박순호	1	20	
57	딘디방전이라	박순호	1	43	
58	진디방전	박순호	1	89	미완
59	진디방	박순호	1	33	
60	진대방전	박순호	1	67	의히리이월초야드리날이라
61	진디방전	박순호	1	54	
62	진디방전 단권나라	박순호	1	38	경신정월순팔일의긋몬노라
63	陳大方傳이라	박순호	1	53	국한자 혼용
64	진디방전이라	박순호	1	65	권말 낙장
65	진디방전	박순호	1	38	
66	진디방전 秦大房傳	박순호	1	26	권말 낙장
67	진디방전	박순호	1	36	권말 낙장
68	진디방전 권지단	박순호	1	26	
69	진디방전 권지단이라	박순호	1	34	
70	진디방전이라	박순호	1	35	병오오월초칠일필등이라
71	진대방전	박순호	1	35	
72	진대방전 陳大邦傳	박순호	1	41	
73	진디방전나라	박순호	1	24	미완
74	진디방전 권지단이라	박순호	1	31	을스십월십일일종호노라

구분	표제	소장처	권수	장수	비 고(기타)
75	진대방전	박순호	1	37	권말 낙장
76	진대방전	박순호	1	35	병진정월초난날서로다
77	진대방전 단권	박순호	1	39	乙丑正月二十二日始書
78	진디방전 권지일	박순호	1	63	
79	진디방전	박순호	1	32	을미연정월십육일등서라
80	진디방전	박순호	1	27	甲寅元月二十五日
81	진디방전	박순호	1	37	계희습월초사일시초
82	진디방전	박순호	1	30	을미오월등서
83	진디방전이라	박순호	1	47	
84	진디방전이라	박순호	1	31	칙주에 영광대안면상동인서, 임자이월초사일종이라, 壬子二月初四日終
85	진대방전	Gabelentz			
86	진대방전	경상대	1		乙丑閏四月日
87	진디방전 陳孝子傳	고려대	1	44	乙巳二月初八膳草于新岩
88	진대방전 陳大芳傳	국립중앙도서관	1	50	
89	진대방전	국립중앙도서관	1	50	
90	진대방전	국립중앙도서관		37	
91	진대방전	국립중앙도서관		27	
92	진대방전 陳大芳傳	국립중앙도서관	1		
93	진대방전 권지단	국민대	1	39	세지계축추칠월삭일갑진의화암은 제후노라
94	진디방전	金戊祚	1		
95	진디방전	사재동	1		
96	진디방전	사재동	1		甲午
97	진디방전	사재동	1		
98	진디방전	安時淳	1		
99	진디방전 大方傳	安時淳	1		
100	디방전	여승구	1		癸亥
101	진디방전	여승구	1		
102	진디방전	여승구	1		김기슈척 병진
103	잔디방전	여승구	1		
104	진디방전	연세대	1	31	
105	진디방전	연세대	1	44	
106	진디방전	영남대	1		
107	진디방전	이화여대	1	33	
108	진디방전	이수봉	1	28	
109	陳大房傳	이수봉	1	28	

구분	표제	소장처	권수	장수	비 고(기타)
110	진대방전	인민대학습당 (평양)	1	24	
111	진디방전이라	임형택	1	34	
112	진대방전 陳大房傳	정병욱	1	59	[표지]大正四年[1915]
113	진디방전 陳大芳傳	정병욱	1	21	을사
114	진디방전 권지단 陳大方傳	조동일	1	25	권말 낙장
115	진디방전 陳大方傳	조동일	1	25	[표지]무오이월십륙일기시, [권말]세무오이양월초오일석양에 졸필우방일이라, 歲戊午二陽月初五日夕陽卒筆于 方日경상북도연일군오천면문덕 동강학촌덕전이라, 칙주인은오시부인이라
116	진대방전	조운제	1		
117	진대방전	충남대	1		
118	진대방전	충남대	1		병진구월일의등서라
119	陳大方傳	河東鎬	1		
120	진디방전이라 陳大邦傳	하버드대 엔칭도서관 Harvard Yenching Library	1	33	庚子二月二十四日 日本國橋本蘇洲등서
121	진大方전이라 陳大方傳單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Harvard Yenching Library	1	57	戊戌四月初三日在南平日東散人 執筆 元本丙3正月二十七日金士集書 하노라
122	陳大方傳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Harvard Yenching Library	1		
123	진태방전 陳泰方傳	홍택주	1		
124	진대방전	전남대	1	38	曹室 刊記: 丁卯(?)二月五日始造, 台谷曹室冊
125	진[대]방전	전남대	1	29	임[자]정월초일일
126	진[대]방전	전북대	1		계[해](?)오월십오일의등서라
127	진대방전 陳大方傳	숙명여자대	1		을사삼월
128	진대방전	동국대	1	29	
129	진대방전	성균관대	1		

구분	표제	소장처	권수	장수	비 고(기타)
	陳大方傳				
130	진대방전	성균관대	1		1929
131	진대방전	전남대	1		
132	진디방전	김종철	1	40	己未
133	진디방전이라	김종철	1	35	丙午二月
134	陳大方傳	여태병	1	25	庚子臘念五日
135	진디방전	여태병	1	29	경술경월초이튿날위시라
136	진디방전	여태병	1	55	병진연
137	陳大房傳	여태병	1	40	甲午正月
138	진디방전	여태병	1	39	
139	진디방전	여태병	1	39	
140	진디방전	여태병	1	39	丙辰二月十四日
141	진디방전 陳大芳傳	여태병	1	39	庚戌正月初八日始抄
142	진디방전이라 진디방전	여태병	1		디정심연[1921]정월?필리라
143	陳大房傳	정명기	1		
144	진대방전	정명기	1		
145	진대방전	정명기	1		
146	진대방전	정명기	1		
147	진대방전	정명기	1		
148	진대방전	정명기	1		
149	진대방전	정명기	1		
150	진대방전	정명기	1		
경판본					
1	진대방전	강전섭	1	16	세지계축추칠월삭일갑진에화암 은제호노라, 由洞新刊本, 권말 8장 낙장
2	진대방전 권지단 秦大房傳	단국대	1	18	由洞新刊
3	진대방전	대영박물관	1	28	
4	진대방전 권지단	대영박물관	1	28	
5	진대방전	동양어학교 (파리)	1	20	
6	진디방전	아스톤문고 ²¹⁾	1	11	
7	진디방전	아스톤문고	1	18	
8	진디방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	18	
9	진대방전	고소설편각본전집	1	36	내제 '진대방전' 밑으로 '秦大方傳'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표제는 '陳大方傳'으로 되어 있음
안성판본					

구분	표제	소장처	권수	장수	비 고(기타)
1	진대방전 권지단	국립중앙도서관	1	16	安城, 朴星七書店, 1917
방각본 ²²⁾					
1	진대방전	天理大:今西龍	1	16	
2	진대방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		1917
3	진대방전 秦大房傳	단국대	1	18	卷末: 後邱新迫彬後
4	진대방전 陳大方傳	프랑스 동양언어 문화학교	1		
5	진대방전	서울대	1	17	
국문활자본					
1	진대방전	이능우 고소설연구	1	62	京城書籍業組合, 1917, 재판 1920
2	진대방전	이능우 고소설연구	1	62	新舊書林, 초판 1915, 재판 1917; 1922
3	진대방전	이능우 고소설연구	1	66	書籍業組合, 재판 1920
4	윤리소설 진대방전	서울대/이능우: 고소설연구,	1	41	滙東書館, 1925
5	진대방전	김종철	1		世昌書館 1951/1953
6	진대방전 陳大房傳	국립중앙도서관	1	44	국한자 병기, [著·發] 朴健會, 新舊書林, 1915, .12.8
7	진대방전	국립중앙도서관	1		[著·發] 朴健會, 新舊書林, 1917
8	진대방전 陳大方傳	박순호	1	62	[著·發] 池松旭, 新舊書林, 초판 1915; 재판 1917; 1922.9.20
9	진대방전 陳大方傳	방민호	1	42	永昌書館 1935.10.30
10	진대방전	『당태존전』	1		東美書市
11	진대방전 古代小說 陳大方傳	국회도서관, 대전대, 조희용	1	35	申泰三, 世昌書館, 1952/1962
12	진대방전 陳大方傳	仁活全	1	85	國漢字 併記[著·發] 朴健會, 新舊書林, 1915.
13	진대방전	『출판목록』	1		永昌書館
한문필사본					
1	陳大方傳	박순호		2	
2	陳大方傳	丁奎福	1		
3	眞大邦傳	강문종	1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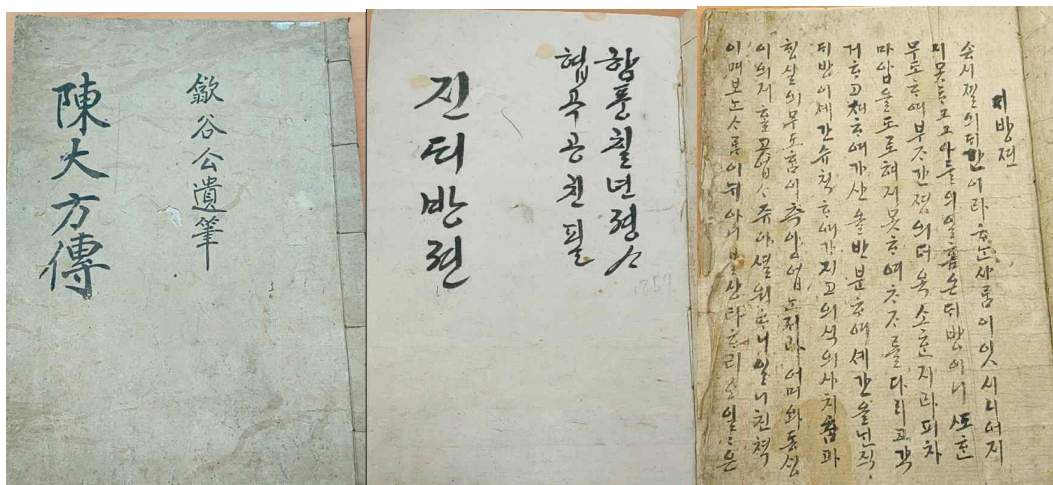
가 되지 않은 이본인 경우 동일함.

21)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22) 완판본, 경판본, 안성판본에 대한 식별이 확인되지 않은 방각본들을 모아 놓음.

이러한 <진대방전> 이본의 조사 결과 국문 필사본이 150종으로 조사되었고, 경판본이 7종²³⁾, 안성판본이 2종²⁴⁾, 기타 확인되지 않은 방각본이 3종²⁵⁾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문 활자본 역시 10종²⁶⁾으로 조사되었다. 한문필사본인 경우 기존에 보고된 1종 이외에 2종이 추가된 3종으로 확인되었다. 한문필사본인 경우 박순호 소장본을 영인한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3권에 2장만 남아 있는 <陳大方傳>과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체 목록으로만 전해지는 정규복 소장 1책 <陳大方傳>과 더불어 최근 강문중 소장 37장본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진대방전> 이본의 수는 총 175종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진대방전>은 방대한 이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중에 필사 시기가 가장 확실하면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이본이 바로 장서각 36장본이다. 따라서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텍스트를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다.²⁷⁾



<그림1> 장서각 36장본 표지 · 간지 · 본문 첫 페이지

- 23) <표1>에서 제시된 ‘경판본’ 분야에서 3번과 4번, 7번과 8번은 각각 동일한 이본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표에 제시한 경판본의 수는 9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7종으로 확인된다.
- 24) 표에서 제시된 ‘방각본’ 분야에서 일본 천리대학교에 소장된 이본인 경우 안성판본으로 확인되었다.
- 25) 표에서 제시된 ‘방각본’ 분야에서 1번은 안성판본으로 확인되었고, 3번은 ‘경판본 2번’과 같은 이본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5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3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3종 역시 실물을 꼼꼼하게 조사할 경우 안성판본 혹은 경판본에 속한 이본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확인되지 않은 방각본으로 처리하여 정리하였다. 이 이본들인 경우 향후 연구에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6) 표에서 제시된 ‘국문활자본’ 분야에서 3번, 4번, 10번, 11번은 동일한 이본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13종으로 확인되었으나 최종 10종으로 판단된다.
- 27) 다음 장에서 전고의 현황을 정리할 때는 방각본과 구활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이본을 보조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위의 이미지는 장서각 36장본이다. 왼쪽 이미지는 이 이본의 표지에 해당한다. ‘陳大方傳’ 오른쪽 옆으로 ‘歙谷公遺筆’이라는 필사 내용이 있다. 현재까지 ‘흡곡공(歙谷公)’의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이본인 경우 흡곡공이 필사자라는 사실만은 확실해 보인다. 가운데 이미지는 표지 다음에 등장하는 간지의 첫 페이지이다. ‘진대방전’이라는 제목 옆으로 ‘협곡공친필’과 ‘함풍칠년정스’라는 필사가 등장한다. 이 이본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필사기에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함풍 7년 정사년(丁巳年)’이 바로 1857년이다. 따라서 이 간지는 표지와 함께 장서각 36장본의 필사자와 필사 연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오른쪽 이미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이다. 이 이미지가 중요한 것은 표지와 간지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의 종이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²⁸⁾ 표지는 다를 수 있으나 간지까지 종이의 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 이본이 1857년 필사된 이후 표지갈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후세에 표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간지가 추가되었으며, 간지에 등장하는 필사기 역시 표지를 다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적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흡곡공친필’이라는 글에서 이 표지 제작자가 흡곡공의 후손임을 추정할 수 있다.

2. <진대방전>에 수용된 전고 정리

모든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진대방전>의 전고(典故)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인식된 전고 수용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이본 수가 175종에 이르고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이본을 대상으로 이 작품에 수용된 전고의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장서각 36장본이 갖는 의미 즉 다른 이본들과

28) 주어진 이미지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 구분이 되지 않지만 실제 원본을 확인한 결과 종이의 질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본의 형태에서 완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사본과 더불어 경판본과 안성판본 그리고 근대 활자를 이용한 구활자본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상업용 출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고 가장 많은 독자들 확보했던 이본들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본과 그 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글필사본이다.

150종의 한글필사본 중에서는 장서각 소장 36장본을 선택했다. 이 이본의 내지에는 “진대방전/협곡공친필/함풍칠년정스”라는 필사기가 있다. 따라서 <진대방전>의 필사연도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으며, 그 해가 바로 1857년이다. 이는 지금까지 밝혀진 <진대방전>의 필사연도 중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창작 시기 또한 19세기 전반으로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이본으로 판단된다.

둘째, 방각본이다.

방각본 중에서는 경판본과 안성판본이 전하며, 기존 연구에서 경판본 중에서는 36장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어 28장본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⁹⁾ 즉 필자는 이를 수용하여 36장본과 이에 비교해서 약간의 변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28장본을 더불어 선정하였다.

셋째, 안성판본이다.

안성판본은 16장본 1종이 전하며, 경판본과는 지역을 달리하여 출판된 판본이므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구활자본이다.

구활자본은 초판을 기준으로 경성서적업조합본(1917)과 회동서관본(1925)에 비해 그 출판시기가 이른 신구서림본(1915)을 선정하였다. 이는 구활자본으로 출판된 가장 이른 시기의 이본이기도 한다.

연구 대상 선정 이후 가장 기본이 되는 메타정보와 함께 이 작품에 수용된 전

29) 이창현(2000),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고의 현황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 순서는 서사의 흐름 즉 태수의 혼계 내용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데, 첫째 진대방 모친에 대한 혼계, 둘째 진대방의 동생에 대한 혼계, 셋째 진대방 아내에 대한 혼계, 넷째 진대방에 대한 혼계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진대방전> 주요 이본의 활용 전고

구분 ³⁰⁾	전고 현황	장서각 36장	경판 36장	경판 28장	안성판 16장	구할 자본	전고의 출전
배경	송나라/ 탁주	송나라 /	송나라 /탁주	송나라 /탁주	송나라 /탁주	송나라 /탁주	
주인공 이름	真大邦	陳大方	陳大方	陳大方	陳大方	陳大方	
방자해지기 시작한 나이	15세	x	15세	15세	15세	15세	
부인 이름	楊氏	x	o	o	o	o	
태수 이름	金義伯	김박	o	o	o	o	
태수의 진대방 모친 혼계	공자와 노왕의 사례 ³¹⁾	o	o	o	o	o	《孔子家語·始誅》
	태임의 사례 ³²⁾	o	o	o	o	o	《列女傳·母儀傳·周 室三母》
	孟母三遷 之敎 사례	o	o한줄 처리	o한줄 처리	o한줄 처리	o한줄 처리	《列女傳·母儀·鄒孟 軻母》
	맹모(孟 母)의 사례 ³³⁾	o	o	o	o	o	《韓詩外傳·卷九》
	맹모가 베를 자른 고사	o	x	x	x	x	《列女傳·母儀·鄒孟 軻母》
	맹자와 부인의 사례 ³⁴⁾	o	o	o	o	o	《列女傳·母儀·鄒孟 軻母》
	陶侃의 모친 사례	o	x	x	x	x	《世說新語·下卷上· 賢媛》
	曾子の	o치순	o	o	o	o	《論衡·感虛》

구분 ³⁰⁾	전고 현황	장서각 36장	경판 36장	경판 28장	안성판 16장	구할 자본	전고의 출전
	모친 사례						
	王陵의 모친 사례	○	○	○	○	○	《史記·世家·陳丞相 世家》
	제순의 사례	○	x	x	x	x	미상
	王孫賈의 모친 사례	x	○	x	x	x	《戰國策·齊策·齊六· 王孫賈年十五事閔 王》
	穆姜의 사례	x	○	○	○	○	《後漢書·列傳·列女 傳》
태수의 진대방 동생 훈계	진서고의 사례	○					미상
	知卿의 사례	○강공	○	x	x	x	《後漢書·列傳·周 黃徐姜申屠列 傳》
	鄧攸의 사례	○등백 도	○등우	○등우	○등우	○등우	《王隱晉書·卷七·鄧 攸》
	卜式的 사례	x	○	x	x	x	《史記·書·平準書》
	王維의 사례	x	○	x	x	x	미상
	繆彤의 사례	x	○목용	○목용	○목용	○목용	《後漢書·列傳·獨行 列傳·繆彤》
태수의 진대방 아내 양씨 훈계	陳孝婦의 사례	x	○	○	○	○	《列女傳·貞順·陳寡 孝婦》
	양씨 사례 ³⁵⁾	○	x	x	x	x	《新唐書·列傳·卷八 十八·孔穆崔柳楊馬 》
	鄭氏①의 사례	○ 내용이 다름	○녕시	○녕시	○녕시	○녕시	미상
	장씨(정의 부)의 사례	x	○	○	○	○	《元史·列傳·卷八十 七》
	鄭氏②의 사례	○ 니시	○	○	○	○	미상
	白氏의	○(개)	○(되지)	○(되지)	○(되지)	○(되지)	미상

구분 ³⁰⁾	전고 현황	장서각 36장	경판 36장	경판 28장	안성판 16장	구할 자본	전고의 출전
	사례						
태수의 진대방 훈계	순임금의 사례	○ 매우 자세함	○	○	○	○	《史記·本紀·五帝本 紀》
	진선의 사례	○					미상
	위백의 사례	○					미상
	原毅의 사례	○간이	○원각	○원각	○원각	○원각	《太平御覽·宗親部 九·孫》
	광계의 사례 ³⁶⁾	○	x	x	x	x	《搜神記·卷十一》
	양흠의 사례	○					미상
	丁蘭의 사례	○(목난)	○	○	○	○	《太平御覽·人事部· 卷五十五·孝下》
	孟宗의 사례	○맹동	○밍종	○밍종	○밍종	○밍종	《三國志·吳書三·孫 皓》
	王祥의 사례	○	○	○	○	○	《搜神記》
	자로의 사례	x	○	○	○	○	《孔子家語》
	江革의 사례	x	○	○	○	○	《後漢書·列傳·劉趙 淳于江劉周趙列傳》
	董令의 사례	x	○	x	x	x	《搜神記》
	潘宗의 사례	x	○	○	○	○	《南史·列傳·卷七十三》
	유검누의 사례	x	○	○	○	○	《南史·列傳·卷五十》
	嵇叔謙의 사례	x	○	○	○	○	《南史·列傳·卷七十三》
	玠의 사례	x	○	x	x	x	《梁書·列傳·卷四十七 》
	王崇의 사례	x	○	x	x	x	《北史·卷八十四列 傳七十二·孝行》
	吳二의 사례	x	○	○	○	○	《夷堅誌·夷堅丁誌· 卷十五》
진공의 사례	x	○	○	○	○ ³⁷⁾	《舊唐書·列傳·卷一 百九十五》	

가장 대표적인 <진대방전> 이본 군을 통해 활용된 고사를 정리하면 위의 표

와 같다.

첫째, 장서각 36장본에 만 등장하고 다른 이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전고가 보인다. ‘맹모가 베틀자른 사례(진대방 모친 훈계)’, ‘도간의 모친 사례(진대방 모친 훈계)’, ‘양씨가 조모에게 젓을 먹인 사례(진대방 아내 훈계)’, ‘광계가 부모를 위해 자식을 묻다가 황금을 발견했다는 사례(진대방 훈계)’ 등이 중국 원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사들이다. 그 외에도 원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순의 사례(진대방 모친 훈계)’와 ‘진선의 사례(진대방 아내 훈계)’의 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장서각 36장본에 등장하지 않고 다른 이본에 나타나는 전고가 등장한다. ‘왕손가의 모친 사례(진대방 모친 훈계)’, ‘복식(卜式)의 사례(진대방 동생 훈계)’, ‘왕유(王維)의 사례(진대방 동생 훈계)’, ‘동령(董令)의 사례(진대방 훈계)’, ‘분(飡)의 사례(진대방 훈계)’, ‘왕숭(王崇)의 사례(진대방 훈계)’, ‘등은 경판 36장본에만 등장한다’. 그런데 ‘목강(穆姜)의 사례(진대방 모친 훈계)’, ‘무용(繆彤)의 사례(진대방 아내 훈계)’, ‘진효부(陳孝婦)의 사례(진대방 아내 훈계)’, ‘장씨(정의부)의 사례(진대방 아내 훈계)’, ‘자로의 사례(진대방 훈계)’, ‘강혁(江革)의 사례(진대방 훈계)’, ‘반종(潘宗)의 사례(진대방 훈계)’, ‘유검누의 사례(진대방 훈계)’, ‘혜숙겸(稽叔謙)의 사례(진대방 훈계)’, ‘오이(吳二)의 사례(진대방 훈계)’, ‘진공의 사례(진대방 훈계)’ 등은 장서각 36장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 등장한다.

셋째, 장서각 36장본에 등장하면서 다른 일부 이본에 나타나는 전고가 등장한다. ‘지경(知卿)의 사례(진대방 동생 훈계)’가 대표적인데 장서각 36장본에 등장하면서 다른 이본 중에는 경판 36장본에만 등장한다.

넷째, 모든 이본에 등장하지만 장서각 36장본에 등장하는 전고의 내용이 다른 이본들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등장하는데 동명 이인의 ‘정씨(鄭氏)①의 사례(진대방 아내 양씨 훈계)’가 가장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백씨(白氏)의 사례(진대방 아내 양씨 훈계)’는 모든 이본에 등장하지만 장서각 36장본에서는 죽이는 것

30) 배경, 주인공, 이름, 나이, 부인 이름, 태수 이름 등은 강문종 소장 한문 필사본을 참고하였다.

31) 불효자 처벌에 대한 견해의 차이

32) 태교

33) 거짓말의 수습

34) 갈등의 원인과 조정

35) 조모에게 젓을 먹인 사례

36) 부모를 위해 지식을 묻다가 황금 발견함.

37) 장공예와 진공 두 명칭 모두 사용

이 개로 나타나는데, 반해 다른 모든 이본에서는 그것이 돼지로 나타난다.

위에서 정리한 양상에서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주목된다. 첫 번째 사례인 경우는 모두 6건이 등장하는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3건이 진대방 모친을 혼계하는 전고로 활용되었고, 진대방 아내 양씨를 혼계하는 경우 2건, 진대방을 혼계하는 경우 1건이 발견된다. 두 번째 사례 중에 장서각 36장본에는 활용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이본에서 활용되는 고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 진대방 모친과 동생을 혼계하는 경우 각각 1건의 고사가 활용되었고, 진대방 아내 양씨를 혼계하는 경우에는 2건의 고사가 활용되었다. 그에 비해 진대방을 혼계하는 서사 부분에서는 7건의 고사를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부분에서 전체 11건 중 63%인 7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활용 양상의 정량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장서각 36장본인 경우 모친 혼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에 장서각 36장본은 다른 이본에 비해 진대방의 혼계가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향후 전고의 수용 양상을 위한 대상으로 활용할 장서각 36장본에 수용된 전고의 현황만을 정리하면 <표3>와 같다.

<표3> 장서각 36장분에 수용 전고

구분	전고 현황	장서각 36장	전고의 출전
태수 이름	金義伯	김박	
태수의 진대방모친 훈계 (9건)	공자와 노왕의 사례 ³⁸⁾	○	《孔子家語·始誅》
	태임의 사례 ³⁹⁾	○	《列女傳·母儀傳·周室三母》
	孟母三遷之敎 사례	○	《列女傳·母儀·鄒孟軻母》
	맹모(孟母)의 사례 ⁴⁰⁾	○	《韓詩外傳·卷九》
	맹모가 베풀자른 고사	○	《列女傳·母儀·鄒孟軻母》
	맹자와 부인의 사례 ⁴¹⁾	○	《列女傳·母儀·鄒孟軻母》
	陶侃의 모친 사례	○	《世說新語·下卷上·賢媛》
	曾子の 모친 사례	○	《論衡·感虛》
	王陵의 모친 사례	○	《史記·世家·陳丞相世家》
	제순의 사례	○	미상
태수의 진대방 동생 훈계(3건)	진서고의 사례	○	미상
	知卿의 사례	○	《後漢書·列傳·周黃徐姜申屠列傳》
	鄧攸의 사례	○	《王隱晉書·卷七·鄧攸》
태수의 진대방 아내 양씨 훈계 (4건)	양씨 사례 ⁴²⁾	○	《新唐書·列傳·卷八十八·孔穆崔柳楊馬》
	鄭氏①의 사례	○	미상
	鄭氏②의 사례	○	미상
	白氏의 사례	○	미상
태수의 진대방 훈계 (9건)	순임금의 사례	○	《史記·本紀·五帝本紀》
	진선의 사례	○	미상
	위벽의 사례	○	미상
	原穀의 사례	○	《太平御覽·宗親部九·孫》
	광계의 사례 ⁴³⁾	○	《搜神記·卷十一》
	양흥의 사례	○	미상
	丁蘭의 사례	○	《太平御覽·人事部·卷五十五·孝下》
	孟宗의 사례	○	《三國志·吳書三·孫皓》
王祥의 사례	○	《搜神記》	

38) 불효자 처벌에 대한 견해의 차이.

39) 태교.

40) 거짓말의 수습.

41) 갈등의 원인과 조성.

42) 조모에게 젓을 먹인 사례.

43) 부모를 위해 지식을 묻다가 황금 발견함.

Ⅲ. <진대방전> 전고 수용 양상

충(忠)·효(孝)·정절(貞節)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다. 이는 전통시대 가족·사회·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충과 효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효경』에서 언급되었듯이 “군자는 부모를 섬기므로 임금에게도 부모를 대하듯 충성할 수 있다.”라는 문구처럼 가족의 안정과 사회 및 국가의 안정은 분리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요, 국가에 충성하는 것 역시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오륜 역시 다양한 관계의 핵심적 가치를 보여준다. 이는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형제(兄弟)·친구(親舊) 등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이는 공적인 분야에서 충을 기본으로 한 군신의 관계와 가족 안에서 사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부모와 자식 관계·부부 관계·형제 관계 그리고 사회적 틀 안에서 사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친구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결국 사회 윤리와 국가 윤리 그리고 가족 윤리를 규정하면서 의미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중 가족 윤리를 중심으로 서사화가 이루어진 고전소설이 바로 <진대방전>이다. 이 작품은 가족간 갈등과 이 갈등을 고을의 태수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가족간의 갈등에 대하여 태수의 교육적 해결은 결국 가족의 갈등이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진대방전>의 내용과 의미가 가족 윤리에서 출발하여 결국 사회와 국가 윤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는 가문과 국가를 다스리는 구조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오륜 중에서 가족 윤리의 주체가 되는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간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사화가 이루어졌다.

1. 재판, 서사 진행의 방향 제시

<진대방전>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진대방의 패륜 즉 불효로 내용이 시작된다. 그는 매우 사치스럽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형제간에 있어야 할 우애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보다도 집안의 재산에 관심이 더 많으며,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가족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아내의 편을 들어 가족간의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간다.

이러한 대방의 행태를 보다 못한 모친은 자신의 손으로 대방을 관에 불효죄로 고발한다. 이에 이 고을 태수 김박⁴⁴⁾은 진대방의 가족들을 모두 관으로 불러 재판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원고에 해당하는 진대방 모친을 심문하게 되는데 10개의 전고⁴⁵⁾를 활용하여 교육적 훈계가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활용한 전고는 공자와 노왕의 사례이다. 이는 『공자가어(孔子家語)』 중 「시주(始誅)」 편에 등장하는 이야기다. 우선 <진대방전>에 활용된 인용문은 아래와 같다.

옛날 공자임은 만고의 덕성인 이시되 논나라⁴⁶⁾ 디슈구 벼살 흐실제 그 님군이 공자씨 못조오디 랄호호 다사리믹 무어슬 묻져 흐리잇가 답왈 효도를 묻져 흐소서 그 후의 자식이 불효호다 호고 관가의 고희는 지 잇거늘 그 님군이 죽이고져 흐여 공자씨 맞기신디 공자 다사리지 아니호고 그져 노호신디 그 왕이 노호여 왈 저증씨 못자오니 효도를 묻져 혼다 흐시믹 이제 불효호는 지 잇서 니 죽여 빅성을 징계 호고 저호여 경을 맞써거늘 다사리지 아니호고 그져 노호시니 엇지 스품을 소기나 니잇가 혼디 공자 답왈 어린 빅성을 노정스 가라치지 아니호고 법의 범호는 즈을 다 죽기면 이는 함정을 노하즘 싱을 잡읍과 드람이 업는 지라 디기 법을 범호는 지 잇거든 우리 묻져 형실을 닷가뵈 예야올 흐니 이다호여 제시니(5~6쪽)

위의 예문은 부모가 자식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기 위

44) 이본에 따라 '김의백'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45) '3장 전고의 현황' 참조.

46) '노나라'의 오기.

하여 활용한 전고의 내용이다. 인용된 전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법에 근거한 처벌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노왕은 부모가 불효죄로 고발한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자인 경우는 형벌로 다스리기보다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먼저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고의 내용은 <진대방전>의 주요 인물인 태수 김박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방의 모친이 불효죄로 아들 대방을 관에 고발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방 모친의 생각과는 달리 태수는 효도에 관하여 먼저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마치 노왕을 대하는 공자의 태도와 일치한다. 사실 <진대방전>의 저자는 공자와 노왕간의 고사 전체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실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자가 노나라 대사구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부자간에 소송을 하는 자가 있었다. 공자는 그들을 같은 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석 달이 되어도 사건을 해결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 되는 자가 소송을 중지해 달라고 청하자, 공자는 이를 허락하고 용서해 주었다. 계손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빛으로 말했다. “사구는 나를 속이는데도다. 지난번 나에게 말하기를 ‘국가는 반드시 먼저 효도를 가르쳐야 한다. 이제 나는 한 사람의 불효자를 죽여 백성들에게 효도를 가르쳤으니 또한 옳지 않은가’ 하더니 이제 와서는 저들 불효한 자들을 도리어 용서해 놓아주었으니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염유(冉有)가 이 말을 듣고 공자에게 고했다. 그러자 공자는 크게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아! 윗사람이 도를 잃어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효로써 교화시키지 못하고 옥사만 몹시 다스린다는 것은 허물없는 백성들만 죽이는 것이 된다. 삼군(三軍)이 크게 패한다 해도 그 장수를 목낼 수 없으며, 옥에 가둔 죄수를 다스리지 않는다 해도 옥리를 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교화가 행해지지 못했기에 그런 것이지 백성들의 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 법령은 게을리하면서 죄를 다스리는 데만 부지런히 하는 것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요, 세금 거두기를 때가 없이하는 것은 백성에게 모질게 구는 것이요, 시험도 해보지 않고 잘하라고 책망만 하는 것은 백성을 못살게 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이 세 가지 폐단이 없는 후에야 형벌을 행할 수 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형벌도 의(義)로하고, 죽이는 것도 의(義)로하여

오직 일에 조심하라' 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가르친 뒤에 형벌을 가하라는 말이다. 이제 이미 백성을 가르치는 데 먼저 도덕으로써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 도덕으로 가르쳐도 안될 경우에는 어진 사람을 시켜 그들이 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권장을 해도 안될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위력으로 탄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하여 3년만 지나면 백성이 바르게 될 것이니 그중에 혹 간사한 백성이 있어 이 교화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비로소 부득이 형벌을 가한다면 아무리 무지한 백성일지라도 모두 저들의 죄를 알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천자를 도와 백성으로 하여금 혼미하게 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런 까닭에 옛말에는 위엄(威嚴)이 있어도 이를 시험하지 않았고 형법이 있어도 이를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지가 못하고 그 가르침이 어지럽기만 하며 그 형벌이 번잡하기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여 함정에 몰아넣고 말았다. 또 여기에 계속해 독재를 하는 까닭에 형벌만 번거로워지고 도둑놈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도대체 저 석 자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빈 수레로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길이 험준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백 길이나 또는 높은 산을 무거운 짐을 싣고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능지(陵遲)한 때문이다. 오늘날의 세속을 본다면 능지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형법이 있다 한들 백성들이 능히 이를 범하지 않겠느냐?"⁴⁷⁾

위 예문은 <진대방전>의 저자가 활용한 고사의 전문에 해당한다. <진대방전>에서 인용한 양상과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보인다. 우선 <진대방전>에서는 불효로 고발 당한 아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노왕과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함정을 파서 짐승을 잡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원문의 경우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하여 교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진대방전>에서는 이 사례들 모두 생략한 채 형벌의 잔인한 집행보다는 교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더 쉽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진대방전>의 작가는 공자와 노왕의 고사를 인용함에 있어 그 의미만을 간략하게 활용하고 보다 쉬운 예를 추가하여 서사화했음을 알 수 있다.

47) 공자 지음, 이민수 옮김(2003), 『공자가어』, 을유문화사, p32~34.

이는 이 작품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축약하여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고를 활용하면서 독자는 향후 진대방과 대방의 아내 양씨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교화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공자와 노왕의 관계에 대한 고사는 결국 <진대방전> 서사의 진행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현모(賢母), 부덕(婦德)의 전범을 통한 자질 향상

태수 김박은 공자와 노왕의 고사를 활용하여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후 곧바로 대방 모친에 대한 훈계를 시작한다. 그는 아들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방보다는 모친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머니의 품행이 단정한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등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명나라 초기 대학자이자 연왕의 정난지변(靖難之變)에 반기를 들어 충절을 지켰던 방효유(方孝孺)의 “자식을 사랑하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고, 가르치되 선(善)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곧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다.”⁴⁸⁾라고 하는 언급이 주목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고사가 바로 태임(太妊)의 고사이다. 태임은 운왕의 어머니로서 문왕을 임신하였을 때 가장 전범이 되는 태교를 실행한 인물이다.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의 교육 관련 고사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맹자의 모친에 관련된 고사들이다. 맹자의 모친과 관련된 고사는 크게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고 반성했던 고사, 베틀의 베를 자른 고사, 맹자와 부인 사이에 중재했던 고사가 활용되었다. 이어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자식 친구들의 술안주를 마련하였던 도간(陶侃)의 고사가 등장하고, 어머니의 정성이

48) 방효유(方孝孺), 『遜志齋集·右第三十六章』: 愛其子而不教, 猶為不愛也, 教而不以善, 猶為不教也.

몸으로 전달되었다는 최순(崔順)의 모친 고사, 자신의 죽음으로 아들의 충과 의리를 지킬 수 있게 하였던 왕릉(王陵) 모친의 고사 등이 이어진다. 이에 가장 먼저 활용한 전고는 조선 지식인들이 훌륭한 어머니의 전범으로 이해하였던 태임(太妊)의 고사이다.

문왕의 모친이 문왕 비여 계실제 눈의 샤흘흔 빗츨 보지 안이 흐시고 귀예 음논흔 소리를 듯지 아니흐시고 스흘흔 음식을 먹지 아니흐시고 손을 편안케 하여 막암의 놀니오미 업게 하시고 누으시미 몸을 기우리지 아니흐시고 안즈시미 몸을 받으케 흐샤 문왕을 나흐시니 신기흐샤 혼나흘 갈라치미 빅을 알으시니 그 어마님 덕으로 천고의 성현이 되시니(7~8쪽)

위의 예문은 태수 김박이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한 후 대방 모친에 대한 훈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활용한 고사이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조선시대 훌륭한 어머니이자 태교로 가장 전범이 되는 태임의 고사이다. 이 고사의 주요 내용은 자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아니라 임신 중 태교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즉, 문왕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성인이 된 것은 태임의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임신 때부터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태교에 임했기 때문이었음 강조함으로써 태교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진대방전>에서는 태임의 고사를 활용하여 태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보다는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즉, 태수 김박은 대방의 성격 형성에 따른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이 고사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임하는 어머니의 자질과 태도를 강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 고사에 대한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태임은 문왕의 어머니이며 지임씨(摯任氏)의 둘째 딸이다. 왕계가 그녀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았다. 태임의 성품은 곧고 성실하여 오로지 덕으로써 행동했다. 태임이 문왕을 임신했을 때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음악을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녀는 태교(胎敎)를 잘

했다. 측간에서 소변을 보고서 문왕을 낳았다. 문왕은 태어나면서부터 비범하여, 어머니 태임이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알았다. 마침내 주 왕조의 주인이 되었다. 군자가 말했다. “태임은 태교를 잘했다. 옛날에는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모로 눕지 않았고, 모서리나 자리 끝에 앉지도 않았으며, 외다리로 서지 않았고 거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현란한 것은 보지 않았고, 음란한 음악을 듣지 않았다. 밤에는 눈먼 악관(樂官)에게 시를 읊게 했고, 올바른 이야기만 하게 했다. 이와 같이 하여 자식을 낳으면 모습이 반듯하고 재덕이 남보다 뛰어난 법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졌을 때 반드시 감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선하게 느끼면 아이도 선하게 되고 나쁘게 느끼면 아이도 악하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 부모를 닮는 것은 모두 그 어머니가 밖에서 느끼는 것이 태아에게 전해진 까닭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모습과 마음이 부모를 닮게 되는 것이다. 문왕의 어머니는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되는 이치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⁴⁹⁾

위 예문은 태임에 대한 고사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열녀전(列女傳)』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가 보인다. <진대방전>에서는 고사를 활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행위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예들은 모두 생략하고 있다. 즉, 다양한 예보다는 어머니의 자질을 확보하고 그 태도 유지에 핵심이 되는 행위를 그리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가르치면 백 가지를 알았다.”는 내용과 “문왕이 성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에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태교의 중요성에서 모친 교육의 중요성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진대방전> 저자의 의도가 태교보다는 교육의 중요성에 있음을 마지막 내용이 보여주고 있다.

태수 김박이 대방 모친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인물은 바로 맹자(孟子)의 모친에 대한 전고이다. <진대방전>에서는 가장 유명한 네 가지 전고를 활용하였는데, 그 첫째가 바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이다.

49) 大任者，文王之母，摯任氏中女也。王季娶為妃。大任之性，端一誠莊，惟德之行。及其有娠，目不視惡色，耳不聽淫聲，口不出教言，能以胎教。洩於豕牢，而生文王。文王生而明聖，大任教之，以一而識百，卒為周宗。君子謂大任為能胎教。古者婦人妊子，寢不側，坐不邊，立不蹕，不食邪味，割不正不食，席不正不坐，目不視於邪色，耳不聽於淫聲。夜則令瞽誦詩，道正事。如此，則生子形容端正，才德必過人矣。故妊子之時，必慎所感。感於善則善，感於惡則惡。人生而肖萬物者，皆其母感於物，故形音肖之。文王母可謂知肖化矣. 유향 지음, 이숙인 역(2013), 『열녀전』, 글항아리, 59쪽.

땡자 모친은 땡즈를 나흐사 말삼 비홀 제 그 동너 영장흐는 거슬 보시고 노르실 제 그 소리흐시니 그 모친이 갈아사디 이곳은 자식 갈르치지 못홀 쌍이라 흐시고 올마 시변(市場)의 거흐시니 땡지 항상 장스의 모양으로 회롱흐시니 그 모친이 또 갈라사디 이 곳도 즈식 같을칠 곳지 아니라 흐시고 올마 학궁 근처의 스투시니 그 제야 땡지 글 비후 난 거동흐시니 그 어마님이 갈아사디 이고지야 자식기를 고지라 흐시고 인흐여 그를 갈으치니(8~9쪽)

위의 예문은 태수 김박이 태임의 태교 사례를 통해 태교의 중요성을 가르친 후 모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훈계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맹모삼천지교 관련 내용이다. 이 고사의 주요 내용은 맹자의 모친이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세 번 이사를 갔고 마침내 학교⁵⁰⁾ 주변에 정착하였다. 주지 하듯 맹자가 묘지와 시장 주변에서 지낼 때에는 공부 즉 학문과는 거리가 있는 생활태도를 보이자 모친이 결국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 교육과 환경의 관련 양상과 환경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사이기도 하다.

특히 태수 김박은 대방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기보다는 대방 모친이 대방을 위해 좋은 교육환경과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맹모삼천지교 고사의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추(鄒)나라 맹자의 어머니는 맹모라고 한다. 그의 집은 묘와 가깝다. 맹자가 어렸을 때 묘에서 놀았다. 무덤을 쌓고 시신을 묻기는 일에 흥미가 있다. 맹모가 ‘여기는 내가 자식을 살게 할 데가 아니구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집을 시장 곁에 옮겨 갔다. 맹자가 장사꾼의 물건 파는 일을 하며 놀았다. 맹모가 또 ‘여기도 내가 자식을 살게 할 데가 아니구나’라고 말하였다. 다시 집을 학궁 곁에 옮겼다. 맹자가 조두(俎豆) 등 제기를 진열하고 읍양진퇴(揖讓進退)의 예를 행하며 놀았다. 맹모가 ‘진짜로 내 아들을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맹자가 커서 육예를 배우고 결국 대유의 명성을 이뤘다. 군자는 맹모가 좋은 것으로 점차 감화를 시켰다고 말했다. 『시경』에 ‘저 아름다운 여자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다.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⁵¹⁾

50) 원문에는 ‘학궁(學宮)’으로 등장함.

51) 鄒孟軻之母也。號孟母。其舍近墓。孟子之少也，嬉遊為墓間之事，踴躍築埋。孟母曰：“此非吾所以居處子也”。乃去舍市傍。其嬉戲為賈人術賣之事。孟母又曰：“此非吾所以居處子也”。復徙舍學宮之

위 예문은 조선시대 맹모삼천지교 고사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열녀전(列女傳)』 <추맹가모(鄒孟軻母)>에 등장하는 고사의 내용이다. 이 내용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화소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진대방전>의 저자는 고사의 원문 뒷 부분인 “마침내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맹자가 커서 육예를 배우고 결국 대유의 명성을 이뤘다. 군자는 맹모가 좋은 것으로 점차 감화를 시켰다고 말했다. 『시경』에 ‘저 아름다운 여자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다.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라는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진대방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대방전>의 저자는 맹자와 모친의 행위에 내용을 집중하면서 모친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고사의 내용은 모친의 행위와 더불어 교육환경과 맹자의 성장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활용한 맹자 모친의 사례는 모자간 신뢰의 문제이다. 관련된 예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 어마님이 밍즈을 엮고 니웃집의 가시니 도야지 잡는 양을 보시고 무르스더 저 거슬 좁아 무엇흐라 하나잇가 혼디 그 어마님이 흐롱하여 왈 너를 주려호고 잡는 다호고 집의 도러와 싱각호시고 탄 왈 문왕의 어마님은 문왕을 빈예 계실제부터 혼일도 그릇흔 일이 업서 성의로 찢그시니 나는 엇지 자식을 속임으로 갈르치리요 호시고 돛회 고기를 사더가 먹이시니(9쪽)

위의 예문은 태수 김박이 맹모삼천지교 고사를 활용한 후에 어머니의 덕행과 자식과의 신뢰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 활용한 고사 내용이다.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중심이 이루고 있다. 한 번 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그 말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맹자의 모친은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고, 그 결과 실제로 돼지고기를 구입해서 맹자에게 먹였던 것이다. 즉 이 고사는

傍. 其嬖遊乃設俎豆揖讓進退. 孟母曰: “真可以居吾子矣”. 遂居之. 及孟子長, 學六藝, 卒成大儒之名. 君子謂孟母善以漸化. 詩雲: “彼姝者子, 何以予之?” 此之謂也. 『列女傳·母儀·鄒孟軻母』

어머니의 말과 말에 대한 진성(眞誠)성 및 행위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거짓말 자체보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행하는 어머니의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고사에 대한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맹자가 어렸을 때 동쪽 옆집에서 돼지 잡는 것을 봤다. 어머니에게 “동쪽 집에서는 뭐 하려고 돼지를 잡습니까?”라고 물었다. 맹자 어머니는 “널 먹이려고 잡는다”고 말했다. 말을 하고 나서 맹자 어머니는 바로 후회하였다. “내가 이 아이를 임신할 때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고 음식이 반듯하게 잘리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이것은 태교(胎敎)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 아이가 도리를 분별하게 되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동쪽 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와 맹자에게 먹였다.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했다. 『시경』에 말하는 “너의 자손들에게 근신하고 조심하도록 잘 가르쳤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현명하면 자손도 현명하게 되었다.⁵²⁾

위 예문은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등장하는 맹자 모친의 거짓말에 관한 고사 내용이다. 이 내용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시 차이가 보인다. <진대방전>에서는 『한시외전』의 원문과는 달리 맹모의 심리적 묘사가 거의 생략되어 행위 중심으로 축약되었다. 특히 맹모삼천지교 고사 활용처럼 서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마지막 부분을 생략하였고, 원문에서는 맹모의 태교가 등장하지만 <진대방전>에서는 태교의 전범이 되는 태임의 대교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실재보다는 명분과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시외전』 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이는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是敎之不信也]”가 <진대방전>에는 “나는 엇지 자식을 속임수로 가르치리오”⁵³⁾로 전환하여 수용한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한시외전』 원문은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데, <진대방전>에서는 ‘거짓말로 자식을 가르치고 키울 수는 없다.’며 양육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52) 孟子少時，東家殺豚，孟子問其母曰：“東家殺豚何為？”母曰：“欲啖汝”。其母自悔而言，曰：“吾懷娠是子，席不正不坐；割不正不食，胎之敎也。今適有知而欺之，是敎之不信也”。乃買東家豚肉以食之，明不欺也。詩曰：宜爾子孫承兮。言賢母使子賢也。『韓詩外傳·卷九』

53) 내가 어찌 자식을 속임수로 가르치리오.

세 번째로 활용한 맹자 모친의 사례는 맹자가 학문 연마를 멈추고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이를 반성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짜던 베를 잘라버린 고사이다. <진대방전>에 활용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 "은 밍지 글 비호러 갖더 가일지 아니호시고 집의 도라오시니 그 모친이 뵈를
바야 호로 쓰시터가 밍자를 보시고 뵈 가운데 버히시니 밍지 무르스디 엇지 뵈허
리를 버히시니 잇가 모친이 답왈 이 뵈을 당초 의씨를 즈아 쓰다가 허리를 버히니
전일 슈고논다 허식라 네 이제 그를 뵈와 일지 아니호니 네 그리이 뵈 가운데 버
힘 갖튼지라 호신디 밍지 마암이 감동하야 즉시 셔당의 가 공부를 극진이 호여 큰
선비되시니(9~10쪽)

이 고사의 주요 내용은 맹자가 중도에 공부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오자, 모친이 그 이유를 묻고 맹자가 더 이상 성장이 없음을 말하자 맹자의 모친이 짜고 있는 베를 자름으로써 맹자에게 학습을 중도에 멈추면 안 됨을 가르쳐 주었다는 일화다. 이 고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맹자가 어렸을 때에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맹자의 어머니가 마침 베를 짜고 있었다. 맹자에게 물어봤다. “얼마나 배웠느냐?” 맹자가 말하기를 “아직 똑같다.”라고 대답했다. 맹자 어머니가 칼로 짜던 베를 잘랐다. 맹자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 까닭을 물었다. 맹자 어머니가 말을 하였다. “내가 공부를 그만두는 것을 내가 짜던 베를 자름과 같다. 군자는 배움을 통해 이름을 세우고, 물음을 통해 학문을 늘린다. 그러므로 집에 있을 때 편안하여 조용하게 지내고 행동할 때 재난을 멀리했다. 이제 너는 공부를 그만두면 남의 부림을 받는 것을 면치 못하며 재앙과 환란을 벗어날 수 없다. 방직으로 의복을 취하다가 중도에 폐하는 것과 같다. 어찌 너희로 하여금 의복을 입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자는 먹고사는 방법을 꿰고 남자는 품성을 수양하지 않으면 도둑이 되지 않아도 남에게 쫓기는 노예를 될 것이다”. 맹자가 두려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다. 그리하여 자사(子思)⁵⁴를 따라서 공부를 했다. 마침내 천하의 유명한 유학자가 되었다. 군자는 말하기를 “맹모는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잘 알았다”고 하

54) 자사(子思): 중국 노나라 출신의 유가이다.

였다. 『시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 어떤 충언으로 알려줄까’라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⁵⁵⁾

위 예문은 『열녀전(列女傳)』 <추맹가모(鄒孟軻母)>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 문헌에 등장하는 관련 고사가 조선시대 맹자 모친이 베를 자른 고사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이 내용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역시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진대방전>에서는 모친이 베를 자르게 된 원인 즉 맹자와의 대화가 생략되어 있다. 특히 맹자의 모친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 설명이 모두 생략되었다. 따라서 <진대방전>에서 수용한 고사는 『열녀전』 <추맹가모>에 비해 맹자 모친의 과감한 행동과 그 행동이 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역시 자식의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실천 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로 활용한 맹자 모친의 사례는 맹자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던 일화이다. <진대방전>에 활용된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장기 드신 후의 마춤 박그로 드리와 침방 문을 여시니 그 안히 옷 버슴을 보시고 극히 무례하시다 하여 그 안히를 너치려 하시니 그 어마님이 경칙하여 왈 네 예모를 모르고 남을 엇지 칙망하난다 스릅이 집의 들밧 소리를 문져 하여 그 안을 문져 알게 하고 방의 들밧 신을 분명이 버셔 노코 방 안의 소리 나거든 방의 들고 만일 소리 나지 아니하거든 드지 안이하며 출입의 분명하거늘 네 출입을 받게 못 하고 안히를 칠거지악⁵⁶⁾을로 칙망하니 " 후는 싱심도 그러헌 일노 칙망치 말나 하여 계시니 " 난 자식을 은의로 갈르치심고요(10~12쪽)

위 예문은 태수 김박이 맹자 어머니의 베를 자른 고사를 활용한 후에 인용된 것으로 맹자 부부 사이의 갈등을 중재했던 고사의 내용이다. 이 고사의 주요

55) 孟子之少也，既學而歸，孟母方績，問曰：“學何所至矣？”孟子曰：“自若也”。孟母以刀斷其織。孟子懼而問其故，孟母曰：“子之廢學，若吾斷斯織也。夫君子學以立名，問則廣知，是以居則安寧，動則遠害。今而廢之，是不免於廝役，而無以離於禍患也。何以異於織績而食，中道廢而不為，寧能衣其夫子，而長不乏糧食哉，女則廢其所食，男則墮於修德，不為竊盜，則為虜役矣”。孟子懼，旦夕勤學不息，師事子思，遂成天下之名儒。君子謂孟母知為人母之道矣。詩雲：“彼姝者子，何以告之？”此之謂也。『列女傳·母儀·鄒孟軻母』

56) 칠거지악: 시부모에게 불손한 것(不事舅姑),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無子), 음탕한 것(淫蕩), 질투하는 것(嫉妒), 나쁜 병이 있는 것(惡疾), 말이 많은 것(口舌), 도둑질하는 것(盜竊).

내용은 맹자와 부인이 사적 공간인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옷을 벗고 있었고, 이를 본 맹자가 아내의 도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발생한 갈등이고, 이를 맹자의 모친이 해결한다는 이야기다. 맹자 부부에게 갈등이 생길 때 맹자 모친은 아들인 맹자를 편애하지 않고 맹자에게 올바른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일깨운 것이다. 즉, 잘못을 한 자신은 반성하지 않고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아내를 책망하는 것이 부부의 도리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고사의 핵심은 맹자 모친이 맹자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데 있다. 『열녀전』 <추맹가모>에 등장하는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맹자가 이미 장가를 되었다. 맹자가 방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 아내가 옷을 벗고 안에 있었다. 맹자가 불쾌해하며 결국 자리를 떠나 들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맹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떠나기를 요청하며 말하였다. “제가 듣기로는 부부의 도리는 사적인 공간(방)에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제가 방안에 혼자 있으면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낭군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저를 손님으로 본 것입니다. 여자의 도리는 방에서 손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에 맹모는 맹자를 불러 그에게 말했다. “무릇 예라는 것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있는가를 묻는 것은 지극히 공경해서이다. 당상에 오르려고 할 때 기침 소리를 꼭 내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다. 방 안에 들어갈 때 눈길을 아래로 두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의 실수를 보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예의를 살피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책망하였는데, 이것은 도리에 벗어난 것이 아닐까?” 맹자가 부인에게 사과하고 떠나지 않게 했다. 군자가 말하기를 “맹모는 예의를 잘 알고 시어머니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⁵⁷⁾

위 예문은 『열녀전』 <추맹가모>에 등장하는 관련 고사 내용의 전문이다. 이 내용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역시 차이가 나타난다. <진대방전>에서 활용한 고사에서는 맹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아내의 의견과 그 의견을

57) 孟子既娶，將入私室，其婦袒而在內，孟子不悅，遂去不入。婦辭孟母而求去，曰：“妾聞夫婦之道，私室不與焉。今者妾竊墮在室，而夫子見妾，勃然不悅，是客妾也。婦人之義，蓋不客宿。請歸父母。”於是孟母召孟子而謂之曰：“夫禮，將入門，問孰存，所以致敬也。將上堂，聲必揚，所以戒人也。將入戶，視必下，恐見人過也。今子不察於禮，而責禮於人，不亦遠乎！”孟子謝，遂留其婦。君子謂孟母知禮，而明於姑母之道。『列女傳·母儀·鄒孟軻母』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장면이 모두 생략되었다. 즉 고사의 관심은 의기 있는 아내에게서 맹자 모친에게 집중시킨 것이다. 이는 서사의 내용이 대방 모친에 대한 훈계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녀전』 <추맹가모>에서 예의가 분명하고 도를 아는 아내의 강직한 모습이 드러날 경우 모친의 가르침에 대한 강조점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들에 대한 모친의 교육적 역할이 크게 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맹자의 모친 관련 고사들이 장황하게 등장한 이후 도간(陶侃)의 모친 사례를 수용하였다. 이는 도간 모친이 가난한 형편이면서도 아들과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결과 아들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는 내용의 고사이다. <진대방전>이 수용한 도간 모친의 고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간이라 호는 스품이 나간 사이에 버지 왓시되 본디 간곤호여 디접홀 거시 업는 지라 그 어마님이 머리를 버혀 술을 사더가 디접호시니 그 버지 도간의 모친을 축히 너겨시니 그 자식의 형실을 알지라 도간을 천거호여 벼살 시기니 "런 부인은 즈식의 어진 벼즐 일홀가 저허흠이라(12쪽)

위의 예문은 <진대방전>에서 태수 김박이 맹자 모친의 고사를 활용한 후에 인용한 도간 모친의 이야기 전문이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교육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들이 자기의 친구를 잃을까 걱정한 나머지 아들 대신 모친이 직접 친구들을 대접하였고, 이에 감동한 친구들 덕분에 아들이 출세한다는 내용이다. 즉 <진대방전>에서 이 고사를 활용한 이유는 친구들의 발화에서 등장하는데, 모친의 선한 행위를 통해 그 자식의 행실을 알아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인격을 포함한 총체적인 모습은 자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태수는 이 고사를 통해 대방의 불효 행위와 대방 어머니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고사에 대한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공은 어릴 때 큰 뜻이 있었는데 집이 몹시 가난하였다. 어머니 담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도공과 같은 고향의 범규는 평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가 효렴(孝廉)으로 인하여 채용(採用)되어 출발하다가 도간의 집에 투숙하게 되었다. 당시

얼음이 얼고 눈이 며칠 동안 계속 내렸다. 도간의 집은 매우 가난하였다. 그러나 범규의 말과 수행원들은 너무 많았다. 도간의 어머니 담씨는 도간에게 말했다. “너는 다만 밖으로 나가서 손님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알아서 계책을 세우겠다.” 담씨의 윤이 나는 머리카락은 땅에 닿을만큼 길었다. 이를 잘라 두 묶음을 만들어 나가서 몇 십 말의 쌀을 구해 왔다. 다시 집의 기둥들을 잘라 반씩 쪼개어서는 장작으로 삼았다. 짚자리는 썰어서 말먹이로 삼았다. 해가 기울 때 드디어 저녁밥을 차렸다. 음식이 가득하여 수행원들까지 모두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컷 먹을 수 있었다. 범규는 이미 도간의 재능과 언변에 감탄하였다. 또한 그 어머니의 이러한 후한 대접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이튿날 그가 떠날 때 도간은 그를 멀리까지 배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이미 1백리를 넘었다. 범규가 말하였다. “너무 멀리 왔다. 너는 어서 돌아가라,” 그러나 도간은 머뭇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범규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돌아가 있으면 내가 낙양에 도착하여 마땅히 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널리 이야기하겠다.” 그때서야 도간은 집으로 돌아갔다. 범규는 낙양에 이른 후에 이러한 일을 양탁과 고영에게 칭찬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도간은 훌륭한 명예를 크게 얻게 되었다.⁵⁸⁾

위의 예문은 『세설신어(世說新語)』 <현원(賢媛)>의 전문이다. 이 고사의 내용과 <진대방전>에서 수용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가 보인다. <진대방전>에서는 친구가 왔다는 사실, 가난하여 대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술을 사서 친구들을 대접했다는 사실, 덕분에 도간이 벼슬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되고 나머지 에피소드는 모두 생략되었다. 즉 아들과 친구들의 발화와 상황, 도간 모친의 머리카락에 대한 묘사, 도간과 친구 규범의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생략되면서 이 고사 역시 결국은 도간 모친의 행위에 집중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사 역시 도간 모친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한 희생만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고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대방전>에서는 아들이 훌륭한 어머니 덕분에 벼슬까지 하게 되었다는

58) 陶公少有大志，家酷貧，與母湛氏同居。同郡範逵素知名，舉孝廉，投侃宿。于時冰雪積日，侃室如懸磬，而逵馬僕甚多。侃母湛氏語侃曰：“汝但出外留客，吾自為計。”湛頭髮委地，下為二髻，賣得數斛米，斫諸屋柱，悉割半為薪，剉諸薦以為馬草。日夕，遂設精食，從者皆無所乏。逵既歎其才辯，又深愧其厚意。明旦去，侃追送不已，且百里許。逵曰：“路已遠，君宜還”。侃猶不返，逵曰：“卿可去矣！至洛陽，當相為美談。”侃迺返。逵及洛，遂稱之於羊晷、顧榮諸人，大獲美譽。『世說新語·下卷上·賢媛』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사실, 원문에서는 도간의 명성이 낙양에 자자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진대방전>에서는 『세설신어(世說新語)』 <현원(賢媛)>의 원문에 비해 어머니 역할과 그 효과가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어머니의 훌륭한 인격은 아들의 명예를 늘일 뿐만 아니라 벼슬까지 얻게 수 있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진대방전>의 저자는 채순 모친의 사례와 왕릉 모친의 사례를 추가로 수용하고 있다.⁵⁹⁾ 전자는 자식과 어머니 사이에 진정성이 있다면 멀리 땅에 있어도 서로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고, 후자는 아들의 충을 실현하기 위해 방해가 될 수 있어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례이다. <진대방전>에 활용된 두 고사는 아래와 같다.

①

최순의 모친은 최순이 나무 허리 간 사이에 순의 버지와 차순 즉 멀리 갓논지라 부를 형세 업스 손가락을 씨무니 순이 나무허더가 홀런 마암이 감동호야 즉시 도러와 그 벗을 더접(待接)호여 보니고 모친기 놀난 연고(緣故)을 못자온 더답 왓(答曰) 네 멀리 가고 불을 형세 업서 손가락을 씨무리 네 마암을 놀남게 흠이라 호신이 모즈(母子)의 혈기(血氣) 호 가지오 부모 섬김으로 한 가지라 이러호 부인의 호신 일을 불진더 엇지 남의 어미 되여 붓그럽지 안이호리요(12~13쪽)

②

호(漢)나라 왕능(王陵)이라 호는 스펀은 흥우를 섬기더가 좃(楚)나라를 버리고 호나라의 도러가 호왕을 섬기니 항위 왕능의 어미를 가두고 왕능의 아들을 죄를 주어 명호여 왓 만일 네 아버⁶⁰⁾ 도라오지 아니호면 쥬기리라 호더 왕능의 모친이 스투(使者)를 불너 왓 호왕은 어진 님군이라 충성을 다호여 몸이 맛도록 섬기고 늘근 어미은 심각지 말나 이왕 몸을 호왕씨 허호 후의 엇지 괴로움을 심각호여 마옵

59) 그리고 제순의 사례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필자가 과문하여 원문을 찾을 수 없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옛날 제순이라 한 사람은 아버 닐죽 죽소 엄이 혼자 닐썬 집이 간난하되 그 자식 니 글을 심 쓰지 안니하고 시 길들리길을 조화하건을 꾸지저 왓 아버 읍소 집니 가난하거날 네 같으침을 듯지 아니하고 니갓타니 어나날 글을 비화 네 몸을 닳타니리요 하시고 시을 죽니고 미을 잡아 치니 순니 마음을 씨쳐 시을 바리고 글을 힘쓰니 큰 선비 되여 그 어미 죽근 후의 발상(發喪)하고 치던 미을 만지며 맛던 다리을 붓뜰고 크게 통곡(慟哭)하여 불외지 ”니 천지간(天地間) 사람의 자식니 되여 모자간(母子間) 정(情)니 닐어한지라”(16~17쪽)

60) ‘아들’의 오기.

을 변호리오 츠라리 니 죽어 즈식의 절의(節義)를 변치 말기 호미 올타 호고 칼을 썬혀 목을 질너 죽으니 엇지 착호지 아니리오 이가튼 부인은 녀즈 등 장뷔라(13~14쪽)

①의 예문은 아들이 나간 사이에 친구들이 찾아오자 채순의 모친이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여 아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대방전>의 내용으로만 보아서 이 고사가 모자(母子) 사이에 혈기가 같아 서로 통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사실 이 고사는 원래의 고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고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전서(傳書)』에서 기록했다: 증자가 효성스러웠는데 그 모친과 혈기를 통하였다. 증자가 들에 가서 십나무를 꺾고 있었는데 집에서 손님이 왔으나 증자가 없어서 떠나려고 하였다. 이때 증자의 모친이 말했다.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증자가 곧 올 것입니다.” 증자의 어머니가 자기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팔을 꼬집었다. 증자가 곧바로 왼팔 통증을 느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에게 “왜 팔이 아프다고 십니까?” 물어봤다.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돌아가려 하길래 내가 팔 꼬집어 너를 부른 것이다.” 이것을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님이 서로 혈기가 통한 것이다. 몸에서 아프면 정신으로 느낄 수가 있다.⁶¹⁾

이는 『논형(論衡)』 <감허(感虛)>에 등장하는 증자의 효에 관한 고사이다. 고사의 내용과 구조가 대부분 일치하는데 몇 가지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는 고사의 주체가 달라졌다. 『논형(論衡)』 <감허(感虛)>에는 증자가 이 고사의 주체인데 <진대방전>에서는 ‘채순’으로 바뀌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논형(論衡)』 <감허(感虛)>의 고사 내용의 핵심과 주제는 증자의 ‘효’에 있지만 <진대방전>의 저자는 효도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생략하고 자식에 대한 모친의 배려와 정성만 크게 부각시켜 놓았다. 즉 <진대방전>에서는 모자(母子) 사이에 서로 통하는 이유가 효에서 모친의 자식에 대한 배려와 정성으로 바뀌 놓은 것이다.

61) <傳書>言: 曾子之孝, 與母同氣. 曾子出薪於野, 有客至而欲去. 曾母曰: “願留, 參方到.” 即以右手搯其左臂. 曾子左臂立痛, 即馳至, 問母: “臂何故痛?” 母曰: “今者客來欲去, 吾搯臂以呼汝耳.” 蓋以至孝, 與父母同氣, 體有疾病, 精神輒感. 『論衡·感虛』

②의 예문은 왕릉의 정치적 상황에서 한나라 유방을 섬기기를 바라는 모친이 죽음으로 아들을 설득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진대방전>의 내용으로 판단하면 다소 모친의 행위가 강조되어 있다. 이 고사의 원문에 해당하는 『사기(史記)』 <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의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왕릉은 옛 패현(沛縣)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 현의 호족이었는데, 고조(유방)가 미천하였을 때 왕릉을 형처럼 섬겼다. 왕릉은 소양이 적었고 멋대로 하는 기질이 있었으며 바른말 하기를 좋아했다. 고조가 패현에서 일어나 [관중으로] 들어가 함양에 이르렀을 때, 왕릉 또한 스스로 무리 수천 명을 모아 남양(南陽)에 거주하면서 패공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한왕(유방)이 [군사를] 돌려 항적(항우)을 공격할 때, 왕릉은 비로소 군사를 한나라에 예속시켰다. 항우는 왕릉의 어머니를 잡아다 군중에 두었다. [이에] 왕릉의 사자가 도착하자 왕릉의 어머니를 동쪽을 바라보며 앉게 하고는 왕릉을 불러들여 [자신에게] 귀의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왕릉의 어머니는 비밀리에 사자를 보내면서 흐느끼며 말했다. “이 늙은이를 위해서 왕릉에게 말하기를 한왕을 삼가 섬기라고 해 주십시오. 한왕은 장자이니 이 늙은이 때문에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십시오. 나는 죽음으로써 당신을 전송하리다.” 드디어 칼을 품고 죽었다. 한왕은 노여워하여 왕릉의 어머니를 삶았다. 왕릉은 마침내 한왕을 수행하여 천하를 평정했다. [왕릉은] 옹치(雍齒)와 사이가 좋았는데 옹치는 고제의 원수였고, 왕릉도 본래 한왕을 따르려는 뜻이 없었던 까닭에 만년에 봉읍을 받아 안국후(安國侯)가 된 것이다.⁶²⁾

위의 예문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인다. <진대방전>에서는 『사기(史記)』 <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에서와는 달리 당시 정치적 상황이 대부분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기(史記)』 <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에서는 왕릉의 모친이 자신의 의지와 죽음을 알리기 위해 사자(使者)를 보내는데, <진대방전>에서는 허구의 인물인 왕릉의 동생을 등장시키고 이 동생을 통해 왕릉 모친의 의지와 죽음을 알리게 한다. 즉 <진대방전>은 『사기(史記)』 <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와는 달리 가족을 등장시켜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모친의 의지와 죽음에 비장함을 더하고 있다. 이 역시 실제 고사에 비해

62) 사마천(司馬遷) 지음, 김원중 옮김(2010), 『사기(史記)』, (주)민음사, 872쪽.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간의 모친 고사, 증자의 효를 변형한 채순의 고사, 왕릉의 고사는 극적인 효과와 더불어 모친의 희생을 전면에 내세운 수용이다. 특히 세 고사는 순서대로 모친의 희생을 점점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선 도간의 모친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수준으로 신체의 고통을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채순의 고사로 변형된 이야기에서는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고 이어 왕릉 모친의 고사에서는 아들을 위해 모친이 직접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이 세 가지의 고사는 <진대방전>에서 원문과는 달리 자식을 위한 모친의 희생을 점점 극단적이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형제애(兄弟愛)·양처(良妻), 극단적 조건을 통한 효행 강조

유교적 이데올로기 중에 효제(孝悌) 혹은 효우(孝友)와 아내로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양처(良妻)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진대방전>에서는 이 두 분야를 다소 간략하게 다룬다. 이는 작품 내에서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가족간 윤리에서 이 분야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형제애인 경우는 간소화 하면서도 동시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처인 경우는 아내로서의 자질과 조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효부의 모습에 시선을 맞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전고 수용의 양상은 형제애와 양처 부분을 나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형제애인 경우 앞서 말했듯이 매우 극단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장서각 36장본뿐만 아니라 경판 36장본, 경판 28장본, 안성판 16장본본, 구활자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서각 36장본에서는 형제간 우애에 대한 사례는 고작 3건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첫 번째가 ‘진서고’의 사례이다.⁶³⁾ 두 번째가 강굉(姜肱)의

63) “진서고라 흐는 스흠은 형이 벼살하여 멀니 가고 업는지라 철복을 보니지 못하면 비록 극흔이라도 오슬 입지 아니하고 제스를 당히미 신무를 보니지 못하면 그 음식을 먹지 못하니 ”는 형 섬기”를 아비 갖치 흠미요(22~23쪽)” 필자의 과문한 탓으로 이 사례는 원문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 논문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사례인데⁶⁴⁾ 이는 경관 36장본, 경관 28장본, 안성판 16장본, 구활자본 등에서는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공[강굉]의 사례는 필자가 선택하여 비교했던 이본을 대상으로 판단해 보면 장서각 36장본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반면 세 번째는 경관 36장본, 경관 28장본, 안성판 16장본, 구활자본 등에서는 수용되었으나 장서각 36장본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사례 역시 등장한다. 바로 무용(繆彤)의 사례이다.⁶⁵⁾ 이는 『후한서(後漢書)』 「열전(列傳)」 <무용(繆彤)>에 그 고사의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다른 이본 군에서는 수용되었으나 장서각 36장본에서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진대방전>에 수용된 강공[강굉]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공이라 호는 슨은 형제 슨랑호여 호 니불 속의 자더가 문득 밧기로 도적이 들러 죽이려 호디 형제 서로 죽기를 닷토와 축슈호니 그 도적이 감동호여 희치 아니 호고 그져 가고(23쪽)

위의 예문은 <진대방전>에서 처음으로 활용한 형제간 우애에 관한 고사이다. 이 고사의 주요 내용은 강공[강굉]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여 동생을 대신하여 기꺼이 죽으려 했던 고사이다. 즉, 함께 잠을 자던 중 도둑이 들어왔는데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죽겠다고 하자 도둑이 감동하여 둘 다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강굉(姜肱)의 자는 백회이다. 팽성 광척 사람이다. 가족이 명문 가족이다. 아우 중해(仲海)와 계강(季江)과 함께 효행으로 나타나 알려졌다. 그 형제들의 우애는 자연히 나오는 지극한 것으로서, 항상 같이 눕고 일어났다. 각자 장가를 갈 때까지 형제가 서로 사랑해서 각거할 수 없었다. 후계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차례로 번갈아 가며 방에 들었다. 광굉은 널리 오경에 통하고, 겸하여 천문학에도 밝았다. 선비들 중에 찾아와 배우는 자가 3천여 명이나 되었다. 많이 사람들이 다투어 그

64) '강공'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진대방전>의 표기와 고사 원문의 표기를 모두 수용하여 '강공[강굉]'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65) 표기는 '목용'으로 등장한다.

들을 징집했지만 다 응하지 않았다. 두 아우도 이름과 소문이 서로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의 사람들이 다 흠모하였다. 강굉은 일찍이 동생 계강과 함께 군으로 뵈러 갔다. 밤에 길에서 도적을 만났다. 도적이 이들을 죽이려 하자. 형제가 서로 죽기를 다뤘다. 그래서 도적이 둘을 모두 놓아주었다. 단지 의복과 재물만을 약탈했을 뿐이었다. 이미 군에 도착했는데 군의 사람들이 강굉의 의복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그 원인을 물었다. 강굉은 다른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 끝까지 도적을 맞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도적들이 들은 후 후회하였다. 정려(精廬)로 가서 정군을 보자고 청했다. 강굉이 그들과 만났다. 그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었다. 강굉은 이를 받지 않고 술과 음식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 후에 서치(徐穉)와 같이 징집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다. 환제(桓帝)가 팽성에 명령을 내려서 화공(畫工)으로 하여금 그의 모양을 그리게 하였다. 강굉은 어둑어둑한 곳에 누워서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자기가 현기증이 걸려 밖으로 나가 바람을 맞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화공은 끝내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중상시(中常侍) 조절(曹節) 등 조정의 일을 장악하여 방금 태부 진번(陳蕃), 대장군 두무(竇武)를 죽였다. 현덕한 사람을 총애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안심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강굉을 불러 태수로 임명했다. 강굉은 소명을 받은 후에 그 친구에게 사사로이 고하고 말했다. “나는 허위로 성과를 얻어서 명성이 매우 높았다. 명군이 조정에 있어도 본래의 지향점을 확고해야 한다. 하물며 지금 정권은 엄수(閹豎)에 있다. 무슨 성과가 있나?” 그래서 몸을 숨기고 멀리 해변으로 갔다. 조정에서 다시 현훈(玄纁)으로 초빙했는데 가지 않았다. 즉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임명하는 조서를 내렸고 집까지 보냈다. 강굉이 가족들로 하여금 “오래 병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대답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더기를 입고 오솔길을 걸으며 청주(靑州)경계에 숨어 복(蔔)을 팔아 밥을 얻어먹었다. 소명이 끊어지자 집에서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몇 년을 지나서 돌아왔다. 나이가 77세 있었다. 회평(熹平) 2년에 집에서 돌아가셨다. 그의 제자 진류(陳留)와 유조(劉操)는 강굉의 덕행을 추모해서 같이 간행하여 돌로 그를 칭송하였다.⁶⁶⁾

66) 姜肱字伯淮，彭城廣戚人也，家世名族。肱與二弟仲海，季江，俱以孝行著聞。其友愛天至，常共臥起。及各娶妻，兄弟相戀，不能別寢，以係嗣當立，乃遞往就室。肱博通五經，兼明星緯，士之遠來就學者三千餘人。諸公爭加辟命，皆不就。二弟名聲相次，亦不應徵聘，時人慕之。肱嘗與季江謁郡，夜於道遇盜，欲殺之。肱兄弟更相爭死，賊遂兩釋焉，但掠奪衣資而已。既至郡中，見肱無衣服，怪問其故，肱託以它辭，終不言盜。盜聞而感悔，後乃就精廬，求見徵君。肱與相見，皆叩頭謝罪，而還所略物。肱不受，勞以酒食而遣之。後與徐穉俱征，不至。桓帝乃下彭城，使畫工圖其形狀。肱臥於幽闇，以被輜面，言感眩疾，不欲出風。工竟不得見之。中常侍曹節等專執朝事，新誅太傅陳蕃，大將軍竇武，欲借寵賢德，以釋眾望，乃白徵肱為太守。肱得詔，乃私告其友曰：“吾以虛獲實，遂藉聲價。明明在上，猶當固其本志，況今政在閹豎，夫何為哉！”乃隱身遯命，遠浮海濱。再以玄纁聘，不就。即拜太中大

위의 예문은 『후한서(後漢書)』 <주황서강신도렬전(周黃徐姜申屠列傳)>에 등장한 강굉 형제간 고사의 전문이다. 이 고사 내용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다. 『후한서』 <주황서강신도렬전>에서는 집안의 사정과 부부생활 장면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우애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왕의 출사(出仕)를 거부하는 장면 등은 모두 생략되었다.

항상 같이 지내면서 각각의 부부관계를 생략하고 임신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을 정도로 형제끼리 밀접하게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만큼 형제애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지는 않다. 즉, <진대방전>의 저자는 형제간의 깊은 우애를 죽음과 연결된 부분만을 수용하여 형제의 행위와 우애의 효과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즉,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를 형제간의 우애로 극복하게 되고 이는 큰 감동을 주게 된다.

형제간 우애를 나타내는 두 번째 사례는 등백도[등유(鄧攸)]⁶⁷⁾의 사례이다. <진대방전>에 수용된 내용의 전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등백도라 혼는 스릅이 형은 도사호고 다만 어린 자식이 인는지라 난세를 당호여 피란호 시 백도는 독하를 업고 안희는 즈식을 업고 가더니 도적이 급히 쌀로는지라 형세를 헤아린 즉 구전호야 스라날 길 업는들 알고 "히 기쳐 왈 적세 약차 티급호니 자질을 다" 리고 가더가는 죽을 거시니 우리는 스라난면 중니 즈식을 다시 보나허 보련이와 죽호는 죽으면 후시 업스리라 호고 니 자식을 바리고 독호를 다 리고 가니 "는 죽은 동싱⁶⁸⁾을 위호미라 엇지 괴특지 아니호리오(23~24쪽)

위의 예문은 태수가 강굉과 동생간의 고사를 설명한 후 형제간 우애를 설명하기 위하여 활용한 고사의 내용이다. 이 고사의 주요 내용은 난리 중에 피난 갈 때 자신의 자식을 포기하더라도 형의 자식은 살림으로써 형의 대를 잇게 할 정

夫，詔書至門。肱使家人對云“久病就醫。”遂羸服間行，竄伏青州界中，賣卜給食。召命得斷，家亦不知其處，歷年乃還。年七十七，熹平二年終於家。弟子陳留劉操追慕肱德，共刊石頌之。『後漢書·列傳·周黃徐姜申屠列傳』

67) <진대방전>에서는 ‘등백도’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이는 두 문헌의 표기를 모두 수용하여 ‘등백도[등유]’로 표기한다.

68) ‘형’의 오기.

도로 형제간 우애가 뛰어난 동생의 이야기이다.

등백도[등유(鄧攸)]는 형이 일찍 죽자 조카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난이 발발하고 피난 가던 길에 모든 식구를 데리고 갈 경우 모두 죽게 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자신의 경우 자식을 다시 낳으면 되지만 형인 경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자식을 포기하고 형의 자식만을 구한다. 이 고사의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등유(鄧攸)의 자는 백도(伯道)이다. 할아버지 등은(鄧殷)은 회남(淮南) 태수이다. 그는 꿈에서 물가를 건다가 한 여자를 보았다. 호랑이가 뒤에서 그의 행낭(行囊)을 물어 끊었다. 점몽가가 물가에 여자가 있어서 여자이다. 행낭을 물어 끊는 것이 새 호랑이 머리로 옛 호랑이의 머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음(汝陰) 태수 아니면 여남(汝南) 태수가 있다. 과연 여음(汝陰) 태수가 되었다. 영가(永嘉) 년 말 난리통에 석륵(石勒)에게 붙잡혔다. 등유가 석륵의 반란을 당했다. 길이 아득히 멀어서 도망쳤는데 수레가 망했다. 소와 말에 아내를 싣고 도망쳤다. 또 도적을 만나 소와 말을 빼앗겼다. 등유가 아내에게 말을 했다. “내 아우는 일찍 죽고 아들 하나가 남겨 두는 뿐이다. 지금은 어가야 하는데 두 아이를 다 죽을 거야. 차라리 우리 아들 포기하고 남겨진 아이를 안 했다. 우리는 뒤에 마땅히 자식이 있게 될 것이다.” 아내는 그 말을 따랐다. 등유는 석륵에 떠나고 이구(李矩)에 찾아갔다. 도성의 동쪽에 물방아를 이용하여 쌀을 찼었다. 등유는 오군 태수를 되었다. 오군(吳郡) 사람들이 기근이 들었다. 등유는 도착하고 조정에 상주하여 양곡 창고를 열어 이재민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고 등유는 바로 양곡 창고를 열어 쌀을 분배했고 한 군이 구제를 받았다. 녹봉을 받지 않고 자기가 양곡을 가지고 오군 물만 마셨다. 그 후에 양곡 창고를 열기 때문에 탄핵을 받았다. 등유는 ‘선행은 하면 안 된다’고 감탄했다. 등유는 이부상서(部尙書)가 되었다. 집에서 말을 방목했다. 아내가 채식했다. 돈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때는 심성이 순정하고 조용했다. 안과 밖에 사람들이 다 공경하였다. 중호군(中護軍)으로 이임했다.⁶⁹⁾

69) 鄧攸字伯道。祖殷，為淮南太守，夢行水邊，見一女子，虎在後來。盪斷其鞶囊，占者以為水邊有女，汝字也，斷鞶囊者，新虎頭代故虎頭也。不作汝陰當汝南也，果遷汝陰太守。永嘉末，沒于石勒，攸遭石勒亂，以路遠，斫壞車，以牛馬負妻子以逃。入草遇賊，又掠其牛馬。攸語其妻曰：「吾弟早亡，惟有遺民，今當步走，儻兩兒便當盡死。不如棄已兒，抱遺民，吾後猶當有兒。婦從之。」鄧攸去石勒投李矩，借水碓舂于城東。攸為吳郡太守。吳人飢荒，攸到，表賑貸。臺不時聽，攸乃輒出倉米，一郡蒙濟。不受祿俸，自載糧食，唯飲吳水而已。後被劾輒出穀，攸嘆曰：「善不可為也。」鄧攸為吏部尚書，牧馬于家庭，妻子素食，不受一錢。當時清靜，內外肅然，遷為中護軍。『王隱晉書·卷七·鄧攸』

위의 예문은 『왕은진서(王隱晉書)』 <등유(鄧攸)>에서 등장하는 고사의 내용이다. 이 고사의 내용 역시 <진대방전>에 수용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보인다. <진대방전>의 저자는 『왕은진서(王隱晉書)』 <등유(鄧攸)>의 내용 중에 ‘등백도[등유]’의 꿈, 석륵(石勒)의 난이 발생하는 과정, 석륵의 난이 끝난 후 ‘등백도[등유]’가 선형을 배푸는 장면 등을 모두 생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강공[강굉]의 고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목적이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변의 화소들은 불필요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도 형의 아들을 살리고 그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는 것 역시 극단적인 형제애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둘째, 양처(良妻)인 경우는 아내의 자질에 효의 의미가 더해져 양처이면서 동시에 효부의 모습에 시선을 맞춘다.

전통시대 여성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조숙녀(窈窕淑女)’와 ‘현모양처(賢母良妻)’ 그리고 여성의 ‘정절(貞節)’이다. 그런데 <진대방전>인 경우에는 ‘현모’와 ‘양처’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여성의 ‘정절’은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진대방전>의 저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현모’와 ‘양처’를 강조하는 것은 이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 진대방이며 그를 둘러싼 여성은 모친과 아내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처(良妻)’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내조를 잘 했던 아내에 대한 사례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시부모를 잘 모신 아내 즉 효부(孝婦)와 남편을 설득하여 형제간 우애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한 사례가 등장할 뿐이다. <진대방전>에 등장하는 이러한 양처(良妻)의 사례는 총 4건이 등장한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젖으로 시모를 봉양했던 양씨의 사례다. 두 번째는 가장이 죽고 시부모를 봉양하던 중 도적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시부모를 효심을 다하여 구한다는 정씨의 사례이다.⁷⁰⁾ 세 번째는 혼자서 시부모를 봉양하다가 시부모가 호랑이에게 물

70) “정시라하느 부인은 가장이 묘수(早死)하고 늘근 시부모를 뒤편고 지니되 늙고 병들려 출입을 모호였는지라 슈야로 시축외 썩나지 아니하고 지니더니 일”은 모야무지간의 도적이 창검을 들

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호랑이를 감동시켜 시부모를 구했다는 이씨의 사례이다.⁷¹⁾ 네 번째는 친구만을 믿고 동생과 사이가 벌어진 남편을 설득하여 형제간 우애를 되찾은 백씨의 사례이다.⁷²⁾ 그런데 경판 36장본, 경판 28장본, 안성판 16장본본, 구활자본 등의 이본에는 등장하지만 장서각 36장본에서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바로 ‘진효부(陳孝婦)’의 사례이다. 사실 이는 『열녀전(列女傳)』에 등장하는 효부의 고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조선시대에 매우 많이 활용했던 고사이기도 하다.

<진대방전>에 수용되었고 동시에 고사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양씨의 사례를 통해 수용 양상을 살필 수가 있다. 이 작품에 수용된 양씨 관련 사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넷날 양시라 흐는 부인이 이시되 시도모 나히 구십이라 치익 업셔 음식을 먹지 못하여 글력이 쇠진 하여 병이 죽연 김피 가는지라 그 부인 민망하여 조모를 저줄 먹거니 음식 먹지 못호연지 슈연이 되여시되 피육이 녀상호고 글력이 강건호여 빅세를 사라시니 니는 세상의 드문 일라 사름이 다 칭찬호엿고(27~28쪽)

위의 예문은 <진대방전>에서 태수 김박이 대방 형제를 훈계한 후 대방 아내를 훈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양씨 고사의 내용이다. 이 고사의 주요 내용은 며느리 양씨가 지극한 효성이 있었고 자신의 젖으로 연로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고 드러와 사름을 히코져 하니 서리갓튼 검광을 뉘 아니 겁호리오 마는 부인이 도곰도 놀너지 아니호고 시아비를 안고 조용이 비러 왈 지 물은 가져가고 늘근 아비는 히치말고 가시면 도로혀 은혜 티산 갖고 덕이 빅골(白骨)난 망일가 하나이다 호고 잔상이 인걸호여 통곡호니 도적니 그 마암을 감동호여 조곰만 지물(財物)도 가져가지 아니호고 그져가니 지금 거저 효부라 칭찬호고(28~29쪽)”이 정씨의 사례인 경우 필자가 과문하여 원문을 찾지 못하였다.

71) “니시라 흐는 부인은 일직 시아비 독고 시엄이를 뵈셔잇더니 일”은 박씨의 사례인 경우 필자가 과문하여 원문을 찾지 못하였다.

72) “빅시라 흐는 부인은 그 집 안히 지극히 사오나와 형제 간이 불화하여 서로 보지 아니호연지 여러 히 되니 그 부인이 민망하여 가로디 동싱간 은이지정을 모르고 남을 조화하거 이와 형제는 부모씩 타나 하늘씨 품슈흔 씨”호 정이 잇고 원망이 업나니 그디를 위호여 비나니 남이 귀훈가 보라 호고 개를 죽여 슝에 죽엄 모양으로 목겨 가지고 모아무지간의 지아비를 다리고 그 벅에 집의 가 ”만이 ”로디 마춤 신쉬 불헿호여 니 죽엄을 감초아 흔적을 모로게 호라 호즉 그버지 놀니여 같오디 니 엿진 말고 니 집의 두지 말고 밧비 갖지고 가라호니 그 부인이 지아비를 두리고 동성의 집에 가 쏘 그 수연을 니르 즉 한말도 디답지 아니 호고 즉시 니러 그 죽엄을 가지고 그 후원의 올라가 무드니 그 제야 전일 글웃흔 일을 개”히 항복호고 형제 다시 사랑호여 훈집의 모다 살며 화동호니(29~31쪽)” 이 백씨의 사례인 경우 필자가 과문하여 원문을 찾지 못하였다.

는 내용이다. 즉 태수 김박이 양씨의 고사로 훌륭한 아내를 설명하기보다는 훌륭한 며느리의 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 고사에 대한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소국(昭國) 최관(崔瑄)은 자손의 번성함이 다른 집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산남의 증조모 장손부인은 나이가 많고 치아가 없었다. 조모 당부인은 시어머니에 섬김을 효성으로 했다. 아침마다 머리를 빗고, 검은 비단으로 머리를 묶고, 비녀 꽂고서, 섬돌 아래서 절하고, 곧 마루에 올라 시어머니에게 젓을 먹였다. 장손부인은 곡식 한 알도 먹지 않았고 몇 해가 되었다. 하루는 장손부인이 병났다. 자기가 며느리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며느리의 자손들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그에게 효도하길 바랐다. 그렇다면 최 씨의 가문이 어찌 번창하고 성대하지 않으냐?⁷³⁾

위의 예문은 며느리가 자신의 젓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고사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당서(新唐書)』 <공목최류양마(孔穆崔柳楊馬)>에 나타난 고사의 내용이다. 이 고사의 내용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진대방전>에 수용된 내용에서는 『신당서』 <공목최류양마>의 내용에서 최관의 증조모가 최관의 조모를 칭찬하는 장면과 앞으로 최관 조모의 자손들이 최관 조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바라는 내용 등이 모두 생략되었다. 이는 자신의 젓으로 시모를 봉양하는 효부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소를 모두 제거하여 효부의 행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효자(孝子), 맹목적 성격을 통한 교육적 효과 제시

73) 昭國里崔山南瑄子孫之盛，仕族罕比。山南曾祖母長孫夫人年高無齒，祖母唐夫人事姑孝，每旦，櫛繼笄拜階下，升堂乳姑，長孫不粒食者數年。一日病，言無以報吾婦，冀子孫皆得如婦孝。然則崔之門安得不大乎？『新唐書·列傳·卷八十八·孔穆崔柳楊馬』

전통시대 가정윤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바로 효(孝)이다. 효도는 사람의 근본이고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특히 효의 핵심은 부모를 따르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에 대가 되는 불효(不孝)는 대개 다섯 가지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것, 둘째는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셋째는 재물을 좋아하여 사사로이 처자를 거느리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넷째는 욕심만 따르다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다섯째는 만용을 좋아하여 싸움을 하다가 부모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⁷⁴⁾ <진대방전>에서 주인공 진대방은 이 다섯 가지 불효 행위 중에서 둘째, 셋째, 넷째의 불효를 저질렀다.

이러한 대방의 불효를 깨닫게 하는데 처음으로 수용된 고사가 바로 순임금 고사였다. <진대방전>에서 활용하는 이 고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님군이 그 아비 고취부완 모은호야 전실 아들 순을 죽이 고저호여 순 다려 일 오디 집 우의 올으라 호시니 죽끝줄 알고 갓두입흘 가지고 올라가니 집 사면의 부를 노호니 불이 일시의 일어나 화광이 창천 호는지라 순이 가졌던 갓두입흘 양편의 들고 뛰어나려 살라나시되 원망호시지 아니호고 그 후의 또 순으로 호여공 움물 파라호시니 주기려 호는 줄 알고 쌍을 파되 갓 궁을 팟 써이니 과연 움물을 급피메 오고 심각호되 반다시 죽도 다호니 후체 아들 상이 마암의 깃거호여 갈오디 모기도 굳은 함아 적이니 창늬 부모요 우 양부모요 금짐이요 저짐이요 이슈난 서치짐서 호리라 호고 형의 궁의 들러간 즉 순이 밭서 살러와 안즈는지라 상이 붓그려호되 순은 더욱 온화이 호여 낫셋을 곳치지 아니하고 아비를 위로호며 공경함을 극진히 호니 그러 호무로 어진 일호미 스희의 진동호였는지라 그썩에 요님군이 어짐을 알고 천거호사 천하(天下)를 맞기시니 천지 되신지라(41~43쪽)

위의 예문은 태수가 대방 아내에게 훈계한 후에 대방에 대한 훈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활용한 효자의 고사 내용이다. 이 고사의 핵심은 순의 어머니가 일찍 죽고 이어 들어온 두 번째 부인이 인자(仁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순의

74) 孟子曰，世俗所謂不孝者，惰其四支，不顧父母之養，一不孝也。博奕好飲酒，不顧父母之養，二不孝也。好貨財私妻子，不顧父母之養，三不孝也。從耳目之欲，以爲父母戮，四不孝也。好勇鬪狠，以危父母，五不孝也。『맹자(孟子)』「이루(離婁)」상(上)

부친 역시 두 번째 부인의 말만 듣고 순을 사랑하지 않았다. 심지어 순을 불로 태우거나 혹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은 부친에 대한 지극한 효를 실천하였다.

이 고사는 조선시대에서 효(孝), 효자(孝子) 혹은 효행(孝行)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고사이다. 특히 순임금은 요임금을 계승하여 태평성대를 완성하고 그가 실천한 효는 훗날 효행의 전범이 되기도 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 내용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순(虞舜)은 이름이 중화(重華)이다. 중화의 아버지는 고수(瞽叟)이고, 고수의 아버지는 교우(橋友)이며, 교우의 아버지는 구망(句望)이고, 구망의 아버지는 경강(敬康)이고, 경강의 아버지는 궁선(窮蟬)이고, 궁선의 아버지는 전옥제이며, 전옥의 아버지는 창의(昌意)이니, 순에 이르기까지 일곱 세대가 흘렀다. 궁선에서부터 순임금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서인이었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맹인이었다. 순의 어머니가 죽자 고수는 다시 아내를 얻어 상(象)을 낳았는데, 상은 오만했다. 고수는 후처의 자식을 편애하여 항상 순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순은 피해 도망 다녔다. 어쩌다가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그 즉시 벌을 받았다. 그러나 순은 아버지와 계모와 동생을 순종하며 섬겼고 날마다 독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순은 기주(冀州) 사람이다. 순은 역산(歷山)에서 농사를 짓고, 뇌택(雷澤)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며, 황하의 물가에서 질그릇을 빚었고, 수구(壽丘)에서 기물을 만들었으며, 틈이 나면 부하(負夏)에서 장사를 했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완고하고 계모는 거짓말을 잘하며 동생 상은 교만하여 모두 순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도 순은 순종하며 자식 된 도리를 잃지 않았고, 동생에게는 자애를 베풀었다. 그래서 순을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찾으면 가서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다. 순은 스무 살에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났다. 서른 살에는 요임금이 등용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악이 모두 다 우순을 추천하여 요임금이 “좋다.”라고 했다. 그래서 요는 두 딸을 순에게 시집보내어 집 안에서의 행동을 살폈고, 아들 아홉을 시켜 함께 생활하게 하여 순의 집 밖에서의 행동을 관찰했다. 순은 규예에 살면서 집 안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요의 두 딸은 고귀한 신분이라고 해서 순의 가족에게 감히 오만하게 대하지 못했으며, 더욱 아내의 도리를 다했다. 요의 아홉 아들은 모두 더욱 성실해졌다. 순이 역산에서

농사를 짓자 역산 사람들은 모두 밭의 경계를 양보했고, 뇌택에서 물고기를 잡자 뇌택 사람들은 모두 거주지를 양보했으며, 황하의 물가에서 질그릇을 빚자 황하 강가에서 생산되는 기물들도 전부 조약하지 않았다. 일 년이 지나자 사는 곳에 촌락이 이루어졌고, 이 년이 지나자 읍이 되었으며, 삼 년이 지나자 도시가 이루어졌다. 요는 그러자 순에게 고운 갈포로 만든 옷과 거문고를 내려 주었으며, 창고를 지어 주고 소와 양을 보냈다. 고수가 여전히 다시금 순을 죽이려 했다. 순에게 창고 위에 올라가 흙으로 마름을 올리게 한 후 고수는 아래에서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워 버렸다. 순은 즉시 샷갓 둘로 불길을 막으면서 내려와 도망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 뒤 고수는 또 순에게 우물을 파게 했는데, 순은 우물을 파면서 남몰래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뚫었다. 순이 이윽고 우물을 깊이 파 들어가자 고수와 상은 함께 흙을 내려 우물을 메웠다. 그러나 순은 몰래 파 놓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서 도망갔다. 고수와 상은 기뻐하며 순이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상은 말했다. “본래 이 계획은 제가 꾸민 것입니다.” 또 상은 그 부모와 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면서 말했다. “순의 아내인 요의 두 딸과 거문고는 제가 가지겠습니다. 소와 양, 창고는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상은 순의 방에서 머물며 거문고를 뜯었다. 순이 와서 그 모습을 보았다. 상은 깜짝 놀라고 불안해하면서 말했다. “나는 형 생각에 한참 가슴 아파 하고 있었어.” 순은 대답했다. “그랬구나. 이 형 생각을 것처럼 하고 있었구나!” 순은 다시 고수를 섬기고 동생을 사랑했으며 더욱 근면했다. 그래서 요가 순을 시험하여 오전을 추진하게 하고 백관을 통솔하는 일을 맡겨 보았더니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⁷⁵⁾

위의 예문은 순을 관련한 고사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나타난 고사 내용이다. 이 고사 내용과 <진대방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생략된 부분도 있고 그대로 수용된 부분도 있다.

첫째, 많은 내용의 생략이다. <오제본기(五帝本紀)>와 비교했을 때 <진대방전>에서는 순임금의 조상과 모친이 일찍 죽고 두 번째 부인이 들어오는 장면과 더불어 후처가 전처의 자식인 순을 박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친 고수와 동생 상이 순을 죽이려 하는 장면과 요임금이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는 장면 역시 모두 생략되었다.

75) 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2010), 『사기본기(史記本紀)』, (주)민음사, 48~50쪽.

둘째,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을 보면, <진대방전>에서는 순임금 고사의 뒷 부분의 내용 즉 고수가 불을 질러 순을 죽이려 하는 장면과 우물을 파 빠뜨려 죽이려 하는 장면 등에도 끝까지 효를 실천하는 순의 모습 등은 거의 원문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 형제가 모두 자신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맹목적이고 순종적인 효를 실천하는 것이다. 대방의 훈계에 사용한 첫 번째 고사 역시 가장 전형적인 고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용 양상은 역시 부모의 박대보다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를 직접 실천하는 장면을 강조하며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후처에 혹하여 자식을 쫓아냈지만 자식이 끝까지 효를 다하는 ‘진선’과 ‘위백’의 사례를 수용하였다.⁷⁶⁾

이어 ‘간이’라고 표기된 ‘원곡(原穀)’의 사례를 수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진대방전>의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간이라 호는 스통은 하라비 늘고 병드럿 난지라 간의 아비 간으로 호여곰 저더가 바리라호디 원간이 압의 말블 거스지 못호여 하라비를 지고 갖더가 강의 당호여 그 남누 한 오슬 씨어 입피고 알오디 너 일피시의 도러올거시니 평안이 계시 압소서 호디 그 하라비 울며 왈 네 아비 무승호여 나를 니여브리라 호여시니 엇지 네 마암으로 오기쉬으리요 호이 간이 호늘을 울러 ” 통곡호고 그 한아비 지고 갖턴 지기를 가지고 도러가니 그 아비 더경호여 꾸지저 왈 그 흥흔 지기를 무어세 쓰려 호고 가져왔나 다 원간이 더왈 엇지 쓸디 업다 호나잇가 아바님게 전호고져 호여 가져왔나니 다 한아반님 늘거 계시다 호고 니여더가 브리라 호엇스오니 아바님도 늘근 후 면 니 쏘흔 자식을 씨겨 저더 가브리을 거시오 니 니 지계를 간직호여 두고 자손의게 전코져호여 가져 왔나니다 그 아비 그 말을 듯고 목 ” 반항의 심각호더가 낫빋출 고치고 왈 늘근 휘 변 다 니러 호리로다 호고 그 아비를 도로 다려다가 지성으로 공경호여 효지되엇시니(45~47쪽)

위의 예문은 <진대방전>에서 수용한 고려장 관련 고사이다. 간의의 부친은 간에게 병든 조부를 버리라고 시켰고, 간이는 부친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서

76) “진선이라호는 스통은 훗처의 혹호여 진선을 살 무려호니 그 아비 명영을 거스지 못호여 삼길 마암을 두엇고(44쪽) 위백이라 호는 사롬의 이비는 후처의 혹 호며 위백을 니치니 백이 원망치 아니호고 스스로 하날게 죄를 어뎛 노라 호고 엄동설한 이면 마암을 조칙호여 그 회포를 거문과 곡조의 울녀타다 가물의 싸주 죽으니(44~45쪽)” 이 두 가지의 사례인 경우 필자가 과문하여 원문을 찾지 못하였다.

조부를 지계에 지고 갔다가 조부의 말을 통해 실상을 깨닫고 행동으로 조부에 대한 효와 부친의 잘못을 보여준 고사이다. 이 고사의 핵심은 부친이 간이로 하여금 조부를 버리게 한 행위, 간이가 조부를 지계에 지고 숲으로 들어가 실상을 알게 된 상황, 조부의 비통함, 간이가 사용했던 지계를 다시 갖고 집으로 와 그 이유를 설명하여 부친을 깨닫게 한 행위, 이후 부친이 효자로 변모한 행위 등이다. 부모가 효도를 모르면 자식도 효도를 모르는 것이고, 부모가 불효를 할 경우 자식에게도 효도를 받지 못할 것임을 행동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고려장으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고려장에 대한 수용이라기보다는 중국 문헌의 동일 고사의 수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태평어람(太平御覽)』 <손(孫)>의 내용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 고사에 대한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효자전>에서 말했다. 원곡이라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모른다. 할아버지가 연로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미워하고 유기하려고 했다. 원곡의 나이는 열다섯 살이여 눈물 흘리며 힘겹게 부모님에 권고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輿)를 만들며 그를 들어 올리고 버리려고 하였다. 원곡이 아버지를 따라가고 여를 회수하고 돌아왔다. 아버지가 말을 했다. ‘너는 왜 이 불길한 기구를 거두었느냐?’ 원곡이 말했다. ‘나중에 아버지가 연로할 때 이런 기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럽고 후회하였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데려오고 봉양하였다.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자책했다. 더욱 순수하고 효성을 했다. 원곡은 순수한 손자이다.⁷⁷⁾

위 예문은 『태평어람(太平御覽)』 <손(孫)>의 이야기이다. 아들이 <진대방전>에서 수용한 간이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고사 내용이다. 고사의 내용 전체가 유사하게 수용되었으나 조금의 차이는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태평어람(太平御覽)』 <손(孫)>에서는 아들이 조부를 버리는 도구가 수레로 등장하지만 <진대방전>에서는 지계로 등장한다. 이는 도로가 정비되고 마차와 수레가 일반화된

77) 『孝子傳』曰：原穀者，不知何許人。祖年老，父母厭患之，意欲棄之。穀年十五，涕泣苦諫。父母不從，乃作輿舁棄之。穀乃隨收輿歸。父謂之曰：「爾焉用此凶具？」谷云：「后父老不能更作得，是以取之耳。」父感悟愧懼，乃載祖歸侍養，尅己自責，更成純孝，穀為純孫。『太平御覽·宗親部九·孫』

중국과는 달리 개인의 운송 수단으로 지계를 많이 사용한 조선의 문화적 환경과 관련되어 보인다. 특히 조선에서도 예부터 ‘기로전설(棄老傳說)’이라 불리는 이야기의 전승되고 있으며, 이 전설에서 거의 모두가 지계로 등장한다.

이어 조부를 버리는 주체가 완전히 다르게 등장한다. <진대방전>에서는 간이를 통해 조부를 버리게 하였다면, 『태평어람(太平御覽)』 <손(孫)>에서는 원곡의 부모가 직접 조부를 수레에 태워 버리고 이를 관찰하던 원곡이 수레를 수거하여 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즉, 원곡의 고사에서 원곡은 부친의 행위를 말리고 수습하는 자식의 행위가 강조되었다면, <진대방전>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부친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간이 행동이 효로 포장되고, 이어 부친을 깨우쳐 진정한 효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대방전>에서 원곡의 고사 활용 양상은 맹목적인 효행과 부친을 회개시키는 진정한 효행에 집중하고 있다. 원곡 고사의 수용 이후에는 광계의 고사를 수용하고 있다. <진대방전>에 수용된 광계 고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네날 광계라호는 슨은 집 가난호여 늘근 어미를 드리고 묘석을 계유 장만호여 노흔직 손지만 논하쥬고 잡삽지 아니호물 보고 민망호여 그 안희외 외손⁷⁸⁾호여 왈 이 자식을 두시면 늘근 부모를 봉양도 못호고 병환이 나실 듯호니 우되는 스라시면 다시 즈식을 보려니와 부모는 업스면 후의 어둡가 다시 보리오 니 자식을 쌍회파 무드리라 호고 그 자식을 다리고 무인지경의 가 쌍홀 쫓더니 문득 큰 그르시 잇거늘 괴이히 너겨 널러 보니 그르시 가득호엿고 쏘 그를 썬시되 광간도 앓지 못홀 거시오 다른 슨도 가지 ” 못호리라 호여거늘 부체 서로 갈오되 어는⁷⁹⁾ 하늘히 주시미라 족히 독히 부모를 봉양호리라 즉시 자식을 다라고 도라와 금을 프라 부모를 효양호여시니 사름이 부모의게 지극 효성호면 보웅지되 잇슬거시어늘 너를 불진디 엿지 윤기 잇다 호리요(49~50쪽)

위의 예문은 간의의 고사를 활용한 후에 수용된 광계의 고사이다. 이 고사의 주요 내용은 광계의 집이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하는데 자식이 방해가 되자, 자식을 없애고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기로 결정한 후 자식을 땅에 묻으려 하다가 금

78) 문맥상 ‘의논으로’ 이해됨.

79) 문맥상 ‘이는’으로 이해됨.

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집안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효를 행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고사의 핵심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 위해 자기의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식을 잘 기르는 것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전설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진대방전>의 작가는 주변의 설화를 수용하였다기보다는 중국의 고사를 수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고사는 『수신기(搜神記)』에 실려 있는 고사가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곽거(郭巨)는 용려(隆慮) 사람이다. 혹은 하내군(河內郡) 온현(溫縣) 사람이라고도 한다. 형제가 셋이었으며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장례가 끝나자 두 아우가 분가를 청하였다. 이에 두 아우에게 집에 있던 돈 모두인 이천만을 각각 천만씩 나누어 갖게 하였다. 곽거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객사(客舍)에 살았다. 부부가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곽거는 아들 하나가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를 모시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다. 이것이 첫 번째 걱정이었다. 그리고 노모가 식사를 하면서, 그 손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니, 결국 어머니의 똥이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것이 두 번째 걱정이었다. 이에 땅을 파고 그 아들을 묻어 버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파던 땅속에서 돌뚜껑이 나와 그 속에 황금이 한 술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단서(丹書)가 들어 있었다. “효자 곽거여! 황금 한 술을 그대가 쓰도록 하사 하노라!” 이에 그의 이름이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⁸⁰⁾

위의 예문은 『수신기(搜神記)』에서 나타난 광계[곽거]의 고사의 전문이다. 『수신기』에 실린 고사 내용의 대부분은 가난할 수 밖에 없었던 광거의 가족 이야기이며, 그로 인하여 조모를 봉양하는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아들을 낳고 아들로 인하여 조모의 봉양이 힘들어지자 아들을 땅에 파 묻어버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이 고사가 송나라 시대 편찬된 『태평어람(太平御覽)』에 실린 동일 고사에 와서는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를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다’로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

80) 干寶 撰, 林東錫 譯注(2011), 『수신기(搜神記)』, 동서문화사, 827쪽.

지만, 이외의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따라서 <진대방전>의 고사 수용은 집안의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모친 봉양보다는 모친을 위해 자식을 땅에 묻는 행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수신기』에 등장하는 고사에서 가족의 상황이 중심이었다면 <진대방전>에서의 수용 양상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효를 실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효행이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계[곽거]의 효도 고사를 활용한 후에 <진대방전>의 저자는 양흙의 고사를 수용한다. 이 역시 부모 봉양에 관한 고사를 활용하였다.⁸¹⁾ 아쉽게 필자는 이 고사의 원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진대방전>의 서사는 이어 극단적인 효의 실천에서 수용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광계 고사 수용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목란의 고사 수용이다. <진대방전>의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목난이라 하는 스릅은 어미 일즉 죽고 업스막 "일 설위호여 엄의 얼굴을 남기 사겨 두고 스라 실제 갖치 섬기더니 문득 마을 스릅이 보고 왈 이거시 집의는 유익지 아니 혼거슬 두고 위한다 하고 희롱호여 미양 치며 칼로 지르니 피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 지라 목난이 드리와 보고 망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호여 지극 인통호고 관가의 정호여 시니 남그로 사긴 어미도 이러 트시 위호엿거든 슬프다(51~52쪽)

위의 예문은 목난의 고사를 수용한 부분인데, 부모가 죽자 나무에 모친의 얼굴을 새겨 두고 섬기는 방법으로 효행을 실천하는 이야기이다. 마을 사람들이 목난의 행위를 보고 조각상을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목난이 나무로 제작한 모친상을 희롱하고 구타하여 칼로 찌르자 조각상은 피눈물을 흘렸다. 이를 확인한 목난은 이 사실을 관에 고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나무로 조각한 모친의 모습도 이처럼 극진하게 모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한 정도로 모친에 대한 효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사실 이 고사

81) 양흙이라 하는 스릅이 그 어마님이 물고기를 항상 질기는 지라 미양 고기를 잡아 봉양호되 고기 잡는 물이 머러 왕니 자연 날슈들 허비호는지라 상히 민망호여 호날거 비러 왈 자식의 불효를 면케호 읍소셔 호고 괴로움을 헤아리지 아니호고 다니더니 일"은 후원의 예 업던 읍물이 나며 고기가 득 호엿는지라 그 후로부터 그 고기를 잡아 모친과 봉양호여시니 그런 일노 불진디 불효호미 엿지 붓그럽지 아니호리오(50~51쪽)

는 『태평어람(太平御覽)』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다. 그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손성(孫盛)의 <일인전>에서 말했다. 정란(丁蘭)이라는 사람이 하내(河內) 사람이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봉양을 못 했다. 그러므로 나무를 깎아 부모님의 조각상을 만들었다. 조각상은 부모님의 모양과 같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듯 모셨다. 조석(朝夕)으로 부모를 잘 섬겼다. 장숙의 아내가 그 조각상을 보고 싶어서 정란의 아내에게 조각상을 보려고 빌려주었다. 정란의 아내가 그 무릎을 꿇고 조각상을 던졌는데 그 조각상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에 그 조각상을 빌려주지 않았다. 장숙이 술에 취해 급하게 들어와 그 조각상을 향해 매우 욕하고 나무 막대기로 그 조각상의 머리를 두드렸다. 정란이 돌아와서 모친 조각상을 보니 조각상 얼굴이 슬퍼보였다. 이에 그의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아내가 장숙이 모친의 조각상을 모욕한 일을 모두 말하였다. 정란은 즉시 칼을 뽑아서 장숙을 죽였다. 이에 관리들이 정란을 체포하였다. 정란이 모친의 조각상에게 말을 하기 위해 갔다. 모친의 조각상은 정란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정란의 아름답고 지극한 효도가 천지신명에게 통하여 칭찬하였고, 운대에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다.⁸²⁾

위의 예문은 『태평어람(太平御覽)』 <효하(孝下)>에서 있는 정란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진대방전>에 수용한 내용 중에 죽은 모친의 조각상을 제작하여 마치 살아 있는 듯이 모시는 장면을 제외하면 생략한 차이가 보인다.

첫째, 주인공의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다. <진대방전>에서는 ‘목난’이라 표기된 반면 『태평어람』 <효하>에서 ‘정란(丁蘭)’으로 표기되었다.

둘째, 조각상을 모욕한 원인이 서로 다르다. <진대방전>에서는 나무 조각상이 불길하기 때문에 희롱하고 칼로 찌르기까지 한 것이며, 이에 대한 나무 조각상의 반응 역시 피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태평어람』 <효하>에서 조각상을 보고 싶다는 이웃에게 조각상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은 이

82) 孫盛『逸人傳』曰：丁蘭者，河內人也。少喪考妣，不及供養，乃刻木為人，髣髴親形，事之若生，朝夕定省。後鄰人張叔妻從蘭妻借看，蘭妻跪投木人，木人不悅，不以借之。叔醉疾來，酣罵木人，杖敲其頭。蘭還，見木人色不懌，乃問其妻，具以告之，即奮劍殺張叔。吏捕蘭，蘭辭木人去，木人見蘭，為之垂淚。郡縣嘉其至孝通於神明，圖其形像於雲臺也。『太平御覽·人事部·卷五十五·孝下』

조각상에게 욕하고 머리를 두드렸다. 이에 대한 반응 역시 <진대방전>에서와는 달리 얼굴을 찡그리고 즐거워하지 않는 표정 정도로만 등장한다.

셋째,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진대방전>에서는 목난이 조각상의 상황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지극히 애통해 하며 관가에 신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반면, 『태평어람』 <효하>에서는 정란이 이웃집의 남성이 조각상을 희롱하는 행위를 보고 검으로 이웃집 장숙을 죽이는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태평어람』 <효하>에서는 모친을 모욕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징치를 중심에 두었다면, <진대방전>에서는 조각상을 모욕한 행위에 대한 조각상의 슬픔과 불쾌함을 극대화시켰다. 따라서 <진대방전>은 모친에 대한 효행은 그대로 수용하고,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모친의 모욕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모친이 나무 조각이지만, 효를 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란의 조각상을 만들고 실제 모친처럼 섬기는 고사를 활용한 후에 <진대방전>의 작가는 맹종의 고사를 수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진대방전>의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땡둥이라호는 스릅은 아비 병 드러 죽순을 먹어지라 호여도 동절을 당호였는지라
죽순 어들길 업서 디맛회 드러가 통곡호고 하늘기 특슈호니 문득 죽순이 느거늘
씩거다가 병든 아비를 먹여 살엿고(52쪽)

위에 예문은 『삼국지(三國志)』 「오서삼(吳書三)」 <손호(孫皓)>에 등장하는 맹종 관련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병든 부친이 먹고 싶은 죽순을 아들이 어렵게 얻어 봉양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겨울철에 구할 수 없는 죽순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효성을 발휘하여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삼국지』 「오서삼」 <손호>에 나오는 고사 원문은 아래와 같다.

<초국선현전>에 말했다. 맹종의 어머니는 죽순을 좋아했다. 겨울이 곧 올 것이다. 이때는 죽순이 아직 돌아나지 않았다. 맹종(孟宗)이 죽림(竹林)에 가고 크게 울었다. 죽순이 돌아났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다 지극한 효성으로 감동해서 되는 것이 여겼다. 벼슬을 광록훈(光祿勳)으로 이임했다. 그럼

으로 공(公)⁸³까지 되었다.⁸⁴)

이 고사 역시 겨울철에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죽순을 정성을 다하여 구한다는 내용이다. <진대방전>에서는 『삼국지』 「오서삼」 <손호>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만 죽순을 먹고 싶어하는 부친의 상황 묘사에 차이가 드러난다. 『삼국지』 「오서삼」 <손호>에서는 단순히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먹고 싶다는 내용이 등장한 반면, <진대방전>에서는 병든 부친이 간절히 먹고 싶어하는 양상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진대방전>의 이러한 수용은 효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한 후,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지극한 효가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맹종의 고사를 수용 이후 <진대방전>의 작가는 왕생의 고사를 수용하고 있다. <진대방전>에 수용된 왕생 고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왕생이라호는 사름은 어미 병 드러 니어(鯉魚)를 먹어지나 호되 동결을 당호여 물이 합빙 호였는지라 니어를 어들 길 업서 강물의 가 어름을 두다리고 축슈호니 문득 어름이 썬여지며 니어 썬여는지라 갖다가 병모를 먹여 회싱호였시니 엇지 축지 아니호리오 디져 이런 스름은 본디 효성이 지극호여 감 천지(感動天地)니라(52~53쪽)

위의 예문은 <진대방전>에서 왕생 고사가 수용된 부분의 전문이다. 병든 모친이 잉어를 간절히 먹고 싶어하는데 강물이 얼어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극한 효로 잉어를 얻는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 이야기 역시 『수신기(搜神記)』에 등장하는 고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왕상(王祥)은 자가 휴징(休徵)이며 낭야(瑯邪) 사람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

83) 공(公): 봉작의 등급. 제왕으로 봉작하는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5등작이 있었다.

84) 『楚國先賢傳』曰: 宗母嗜筍, 冬節將至. 時筍尚未生, 宗入竹林哀歎, 而筍為之出, 得以供母, 皆以為至孝之所致感. 累遷光祿勳, 遂至公矣. “右大司馬丁奉, 司空孟仁卒.” 아내 배송지(裴松之)가 주석 인용한 부분에 나타난다. 『三國志·吳書三·孫皓』

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계모 주씨는 어질지 못해 자주 왕상을 참획하였다. 이 일로 해서 왕상은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잃고, 매번 소똥이나 치우는 일에 사역되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병이 나자, 왕상은 허리띠도 풀어 보지 못할 정도로 간병을 하였다. 어머니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였지만, 때가 추운 겨울이라 물이 모두 얼어붙어 생선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왕상이 물가로 나가 옷을 벗고, 장차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 고기를 잡으려 던졌더니, 얼음이 갑자기 스스로 갈라지며 그 속에서 잉어 두 마리가 뛰어오르는 것이었다. 왕상이 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또다시 참새구이를 먹고 싶다고 하자, 다시 참새 떼 수십 마리가 그의 막사(幙舍)로 날아들어, 이로써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탄복하였으며, 모두 효성에 감응하여 생긴 일이라 여겼다.⁸⁵⁾

위의 예문은 『수신기』에서 나타난 왕상 고사인데, <진대방전>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다양한 화소가 생략되는데, <진대방전>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수신기』의 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즉 『수신기』에서는 계모(모친)의 악행과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는 장면 그리고 참새를 먹고 싶다는 말에 참새를 잡는 장면 등이 등장하는데, <진대방전>에서는 이와 같은 화소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 즉, <진대방전>에서는 두 편의 에피소드 대신 한 편만을 선택하고 왕상의 행동보다는 효를 위하여 간절히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효 혹은 효자와 관련하여 서사에서 수용한 전고를 보면 매우 극단적인 모습으로 효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수용된 전고처럼 효를 실천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85) 干寶 撰, 林東錫 譯注(2011), 『수신기(搜神記)』, 동서문학사, 817쪽.

IV. <진대방전> 전고 수용 양상의 의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진대방전>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고사 수용에 있다. 심지어 서사의 진행 상황과 방향성마저도 고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사 수용의 서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적 처벌보다는 백성을 깨닫게 하여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자가 노나라 대사구로 있을 때 노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사를 통해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과 서사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고사는 작품의 흐름과 더불어 내용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자와 노왕의 사례’의 수용은 불효에 대한 법률적 처벌보다는 훈계와 교육적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가는 이 고사의 수용을 통해 향후 서사의 진행 방향과 내용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가부장적 시선을 통하여 가족간의 갈등과 자식의 불효에 대한 책임이 현모(賢母)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여성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진대방전>의 갈등은 재물에 집착하고 사치스러운 생활과 함께 아내를 잘 다스리지 못한 진대방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태수 김박은 진대방을 먼저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대방 모친을 불러 현모의 개념과 역할을 통하여 훈계하기 시작하였다. 상과 하가 충돌할 때 상과 하의 처지를 설명하고, 우선 위에서 갖추어야 하고 덕으로 서술하고,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진대방전>에 대방 부부와 어머니를 갈등을 생겼을 때 먼저 어머니의 시선을 맞춰야 한다.

현모(賢母) 관련 고사의 수용은 우선 장서각 36장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황과 묘사 그리고 수식하는 표현들을 대부분 생략하고 어진 어머니 역할의 실천과 그 행위를 강조하는 양상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단순히

교육적 의미보다는 어머니의 자질과 역할을 더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도간의 모친, 증자의 효행을 변형시킨 채순의 고사, 왕릉의 고사 등의 수용에서 알 수 있듯이 모친의 희생을 통한 교육적 행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곧 아들의 잘못이 근본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대방 모친을 훈계하는 과정과 이에 수용된 고사는 총 9건으로 나타나고 진대방의 훈계에 수용된 9건 고사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형제애(兄弟愛) 관련 고사의 경우 가정의 불화와 해결의 측면에서 비중을 최소화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시켜버렸다. <진대방전>에서 형제간 우애 관련 고사의 수용 과정에서 각종 장면들 특히 선행을 베푸는 장면까지도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자신의 고사의 주인공과 주인공 자식의 죽음 등을 통한 극단적인 우애만을 3건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진대방전> 중에 형제의 갈등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는 이 작품 전체의 서사 중에 그 의미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가정불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모 역할의 부재와 더불어 불효에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가정불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효의 실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식[아들]의 효와 관련된 고사의 수용은 총 9건이 등장하는데, 이는 현모의 교육적 역할과 같은 비중이다. 이는 모친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대방의 훈계를 대등하게 다루면서도 서사의 중심에 효의 실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효의 진고 수용은 자신과 자식의 죽음까지 불사하며 실천하는 경우, 고려장 이야기처럼 부친을 설득하는 이야기, 모친 사후에도 조각상을 만들어 효를 실천하는 상황, 계절에 따라서 구하기 힘든 음식을 구하여 봉양하는 행위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효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효를 강조한 양처(良妻)의 수용 양상과 더불어 맹목적인 효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처와 관련된 고사의 수용은 총 4건으로 빈도수로 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 특히 4건 중에 백씨의 사례는 형제간 우애의 회복에 의미를 두

고 있어 형제에 관련 고사의 수용 양상과 다르지 않다. 양처 관련 고사의 수용 양상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세 건의 양상에 있다. 이는 도적이나 호랑이로부터 시부모들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젖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양처 관련 고사 역시 그 기준이 효의 실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처 관련 고사 수용 역시 대방의 훈계에서 활용한 효 관련 고사의 수용과 연결된다. 극단적인 효행 사례를 통해 효행의 행위 양상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효의 극단적 예를 들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효 혹은 효자에 대한 교육적 의도 및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전고의 수용과 작품 전체의 흐름을 통해 효 혹은 효도의 중요성이 유가의 순차적(順次的)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유교적 효의 인식과 실천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차적 의미의 강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부모이다. 즉, 효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이 부모라는 것이다. 효를 실천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바로 아내와 자기 자식이고, 마지막으로 바로 ‘자신’이다. 따라서 <진대방전>에서 전고의 수용과 활용의 순서가 태수의 훈계 순서로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현모 관련 내용이 등장하고 이어 형제애와 양처 관련 고사의 내용을 통해 훈계를 이어간다. 결국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피고인의 신분인 진대방의 효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 것이다.

여섯째, 가정 내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진대방전>의 고사 수용 양상에 드러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가정의 불화는 모친의 자질 부족과 교육적 역할의 부재, 그리고 자식들의 불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모친의 자질과 교육적 역할의 회복과 자식의 효행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진대방전>에서는 이처럼 많은 중국 전고를 활용하여 서사화 함으로써 고전소설의 효용성이 더욱 넓어졌으며, 이를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서사를 이끌어나가게 되면서 고전소설의 흥미성을 더욱 높였던 것이다. 이러한 흥미성은 단순한 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중국 전고를 활용하여 대방 어머니,

대방 동생, 대방 아내 그리고 대방에게 훈계하는 형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소설의 중심 시선이 가정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대방전>의 고사 수용 양상의 내적 의미와 함께 작품 외적 의미 역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대방전>은 작품의 분량이나 서사의 구조 및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이는 지나치게 많은 이본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진대방전>의 이본수는 총 175종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국문 필사본, 경판본, 안성판본, 방각본을 비롯하여 한문본까지 모두 존재한다. 이는 한국 고전소설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을 단순히 소설적 흥미성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고전소설의 수신서(修身書)적 성격이다.

수신서들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대부 지식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지어졌는데, 주로 ‘규훈서(閨訓書)’ 혹은 ‘여훈서(女訓書)’로 불렸다. 송시열(1670-1689)의 『우암선성계녀서』, 한원진(韓元震)의 『한씨부훈(韓氏婦訓)』(1712), 권구(權矩)의 『내정편(內政篇)』(1716-1723),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의 『계자부문(戒子婦文)』,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士小節)』 「부의(婦義)」(1775), 김종수(金宗壽)의 『여자초학(女子初學)』(1797), 조준(趙焮)의 『계녀약언(戒女略言)』(1860), 박문호(朴文鎬)의 『여소학(女小學)』(1882)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왕실의 주체들에 의해 지어진 여훈서 역시 민간에서 활발하게 유행하였다. 소혜왕후(昭惠王后)가 1475년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내훈(內訓)』과 영조의 빈 영빈이씨(映嬪李氏)가 지은 『녀범(女範)』,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본 『곤범』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왕실에서는 한글 여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순원왕후 김씨(1789~1857)가 규방가사의 형식을 활용하여 직접 지은 <김대비 훈민가>를 지어 민간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는 17세기 이후 가문의식의 강조와 강화된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⁸⁶⁾ 여성에게 필요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민간 전파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왕실의 주체들

86) 김연순, 「조선 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8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6. 30~33쪽.

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훈서류를 제작 배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헌들은 모두 교육용으로 특화된 일종의 교과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된 지식 전달 매체와는 달리 고전소설 역시 여성 수신서(修身書)의 성격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 창작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소현성록>으로부터 시작된 한글 대장편소설 역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주로 여성 인물의 모범적 행동, 인물에 대한 서술, 인물 간의 대화와 문답 등 작품 전체에 드러난 의식을 통하여 여성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부여하였다.⁸⁷⁾ <진대방전>의 전고 수용양상은 바로 이러한 고전소설의 수신서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서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었고, 고전소설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양의 이본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본으로 남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적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87)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V. 결론

이상과 같이 <진대방전>의 중국 고사 수용 양상과 그 속에 담긴 서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진대방전>의 이본 현황과 장서각 36장본의 서지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이본은 필사본 150종, 경판본 7종, 안성판본 2종, 확인되지 않은 방각본 3종, 구활자본 10종, 한문 필사본 3종 등 총 175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중에 이본 형성 시기가 가장 빠르면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본이 장서각 36장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이본의 형성 시기가 1857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작품의 창작 연대를 19세기 전반을 전후한 시기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장서각 36장본에서 수용된 중국 고사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진대방전>의 이본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을 장서각 36장본, 경판 36장본, 경판 28장본, 안성판 16장본, 신구서림에서 출판한 구활자본을 대상으로 수용된 고사를 전수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인 장서각 36장본에서 수용된 고사는 현모 관련 9건, 현제간 우애 관련 3건, 양처 관련 4건, 효 관련 9건 등 총 25건이다. 이 고사의 수용 결과를 장서각 소장 36장본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 대상 이본과 비교한 결과 장서각 소장 36장본은 다른 이본들에 비해 모친의 훈계를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진대방전의 훈계인 경우 조사 대상이었던 다른 이본들에 비해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서각 36장본인 경우 서사의 내용 중에 모친 훈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진대방전>의 전고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공자와 노왕의 사례를 통해 불효에 대한 법률적 처벌보다는 훈계와 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냈고, 이 고사의 수용 양상을 통해 작품 전체의 서사 진행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 9건의 현모 관련 고사의 수용은 가부장적 시선을 통해 가족간의 갈등과 자식의 불효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전적으로 현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여성에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형제애(兄弟愛) 관련 고사의 수용 양상은 가정불화의 문제에 큰 비중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9건의 효 관련 고사와 4건의 양처(良妻) 관련 고사의 수용을 통해 가정불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현모 역할의 부재와 더불어 불효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가정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역시 현모의 역할 회복과 효의 실천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진대방전>의 이본은 총 175종이 있고, 형태 역시 필사본, 완판본, 경판본, 안성판본, 구활자본, 한문본 등 모든 형태의 이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독자들의 반응이 높았고, 둘째,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민간 보급이라는 지배계층의 의도가 있었으며, 셋째, 여성들을 위한 수신서적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자료]

『孔子家語』

『舊唐書』

『南史』

『東觀漢記』

『梁書』

『列女傳』

『禮記』

『論衡』

『孟子』

『北史』

『史記』

『三國志』

『世說新語』

『遜志齋集』

『新唐書』

『王隱晉書』

『元史』

『夷堅誌』

『異苑』

『戰國策』

『太平御覽』

『韓詩外傳』

『後漢書』

<진대방전>, 경판 28장본.

<진대방전>, 경판 36장본.
 <진대방전>, 구활자본.
 <진대방전>, 안성판 16장본.
 <진대방전>, 장서각 소장 36장본.
 干寶 撰, 林東錫 譯注(2011), 『수신기(搜神記)』, 동서문학사.
 공자 지음, 이민수 옮김(2003), 『공자가어』, 을유문화사.
 김태준(1939),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2010), 『사기본기史記本紀』, (주)민음사.
 사마천(司馬遷) 지음, 김원중 옮김(2010), 『사기史記』, (주)민음사.
 유향 지음, 이숙인 역(2013), 『열녀전』, 글항아리.
 이창현(2000),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정주동(1966),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조동일(2001),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조희웅(1999), 『고전소설 이본목록』, 集文堂.
 조희웅(2006), 『고전소설 연구보정 下』, 박이정.

[논저]

강연임(2019), 「<진대방전>의 교육 텍스트적 구조와 특징」,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영근(2011), 「텍스트 과학」, 집문당.
 김연순(2006), 「조선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8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南星祐(1983), 「古代小說에 나타난 孝의 研究」,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모리스 꾸랑 원저, 李姬載 번역(1994), 『韓國書誌』, 一潮閣.
 박은정(2005), 「<진대방전>에 나타난 이념의 위상과 이본 생성 동인」, 한민족어문학회.
 송성욱(1994), 「<진대방전> 연구」, 『공사논문집』 35, 공군사관학교.
 스킬런드(W.E.Skillend)(1968), 『Koaed Sosol: A Surver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古代小說』, London: Unwin Brotjers.

- 신태수(2014), 「<三綱行實圖>효자편과 <진대방전>의 거리」, 우리말글학회.
- 이태문(1998), 「윤리 의식의 중세적 형상화: 진대방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임치균(2007),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조도현(2012), 「<진대방전>의 윤리교화적 실상과 의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조재연(1999), 「<진대방전 이본 연구」, 『국민어문학』 7,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기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

<부록>

진디방전(陳大方傳)(장서각 36장본)

[표지]

陳大方傳

歙谷公遺筆

[內紙]

진디방전

함풍 칠년 정스

협곡공 친필

[1]

송시절의 디반 이라호는 사툼이 잇시니 어지지 못호고 그 아들의 일흠은 디방이니 쏘호 무도호여 부즈간 정의 더욱 소호지라 피차 마암을 도로혀지 못호여 츠즈를 다리고 각거호고 처호여 가산을 반분호여 세간을 닛 직 디방이 세간 슈척호여 가지고 의식의 사치흠과 형실의 무도흠이 측양 업논지라 어미와 동성이 의지할 곳 업스 쥬야 설위호니 일니 친척이며 보논 슝이 뉘아니 불상타 호리오 일 ” 은

[2]

그 어미 분호물 이기지 못호여 줌을 일외지 못호고 음식을 먹지 못호여 쑤지져 왓 며나리 쏘호 지아비을 썩라 어미와 동성을 이간호여 불순케 호니 천지간 불척호 계집아라 어디가 의탁호리오 호디 교훈을 듯지 안이 호고 불순호 말로 디답거늘 설음을 이기지 못호여 통곡호고 도라왔더니 그 며라리 거짓알는 체 호고 머리을 쓰고 누어이지 아니호니 디방이 밧그로 좃츄드러와 알는 거동을 보고 놀내 물은디 ” 답지 아니호거늘 직삼 무른직 디답 왓 시어마님이 쑤지져 일오디 네 불

[3]

칙혀여 흥흔 말노 무도흔 지아비을 교촉혀여 부모 동싱을 다 쥬기러하니
슈이 네 집으로 도라 가라하니 부모의 꾸중이 관겨치 아니호되 니는 진실
로 구슈 갖치 아는 지라 나일 아니 나간 즉 관가의 고희여 강상죄을 닛타
너리라 하니디 저 남의 손의 죽나니 츠라이 즈결혀여 죽을만 갖지 못호이
다 쏘흔 그 디게 악명을 실고 버검은 업편 자식을 뉘게 의탁하며 니 좋은
뉘 손의 죽을 줄 알리오 그러호기로 설원호노라한디 "방이" 말 듯고 분
함을 춤지 못혀여

[4]

엄의 집의 도라가 구박혀여 왈 자친이 비록 나늘 나어시나 동싱만 사랑호
고 우리 부체와 즈식을 다 죽이러하니 니 엇지 마암이 온전호리오 호고 동
싱을 무슈이쳐 유혈이 낭자호고 스지를 쓰지 못하니 보는 슝이 뉘 아니
분혀여 호리오 그 어미 분을 이기지 못혀여 관가의 고희니 그 쌍원의 성은
김이요 명은 박이라 이 말 듯고 크게 놀나급히 추동을 거라미고 그 어미
며라리와 동싱을 불너 안치고 경계혀여 왈 너희 관가의 알원말 드르니 천
지간 놀납고 두려운 말이라 니 비록 무

[5]

식호고 소견이 저그나 니 말노희 자서이 드르라 옛날 공즈임은 만고의 디
성인 이시되 논나라⁸⁸⁾ 디슈구 벼살 호실제 그 님군이 공즈찌 못즈오디 랄
호호 다사리미 무어슬 문져 호리잇가 답왈 효도를 문져 호소서 그 후의 자
식이 불효호다 호고 관가의 고희는 지 잇거늘 그 님군이 죽이고져 하여 공
즈찌 맞기신디 공지 다사리지 아니호고 그져 노호신디 그 왕이 노혀여 왈
져즘찌 못자오니 효도를 문져 한다 호시미 이제 불효호 지 잇서 니 죽여
빅성을 징계호고 저혀여 경을 맞써거늘 다사리지 아니호

[6]

88) '노나라'의 오기.

고 그져 노호시니 엇지 스름을 소기나 니잇가 헌디 공지 답왈 어린 빅성을
 노정스 가라치지 아니하고 법의 범헌 즈을 다 죽기면 이는 함정을 노하즘
 싱을 잡음과 드람이 업는 지라 디기 법을 범헌는 지 잇거든 우리 몬져 형
 실을 닷가뵈 예야올 호니 이다호여 제시니 이제 업이가 즈식이 불효한다
 하고 관가의 고흐니 니 빅성의 관원이 되어 효도를 몬져 가라치미 잇시면
 엇지 이러호리오 만은 니 불민헌트스로 이런 경상을 당호니 엇지 붓그럽지
 안이호리오 쏘흔 호날 밋티 남의 어미 되어 즈식

[7]

을 어진 형실을 몬져 가라치지 아니하고 자식의 불효을 당악케 호니 그 죄
 경치 아니호지라 니 어지 " 못호여 이갓호니 남의 훈계를 엇지 니라리오
 마는 다시 가라치니 즈셔히 드르라 문왕의 모친이 문왕 비여 계실제 눈의
 샵특헌 빗출 보지 안이 호시고 귀예 음눈헌 소리를 듯지 아니호시고 스투
 헌 음식을 먹지 아니 호시고 손을 편안케 호여 막암의 놀니오미 업게 하시
 고 누으시미 몸을 기우리지 아니호시고 안즈시미 몸을 받으게 호샤 문왕을
 나호시니 신귀호샤 혼나홀 갈

[8]

라치미 빅을 알으시니 그 어마님 덕으로 천고의 성현이 되시니 슈티호엿
 실제붓터 어질 물을 씻금이요 밍자 모친은 밍즈를 나호사 말삼 비홀 제 그
 동니 영장호는 거슬 보시고 노르실 제 그 소리호시니 그 모친이 갈아사디
 이곳은 자식 갈르치지 못홀 썩이라 호시고 올마 시변의 거호시니 밍지 항
 상 장스의 모양으로 희롱호시니 그 모친이 쏘 갈라사디 이 곳도 즈식 같을
 칠 곳지 아니라 호시고 올머 학궁 근처의 스르시니 그제야 밍지 글 비후
 난 거동호시니 그 어마님이 갈아사디 이고지야

[9]

자식기를 고지라 호시고 인호여 그를 갈으치니 그 후의 그 어마님이 밍즈
 을 업고 니웃집의 가시니 도야지 잡는 양을 보시고 무르스디 저거슬 줍아

무엇하랴 하나 잇가헌디 그 어마님이 흐롱하여 왈 너를 주려호고 잡는다호고 집의 도러와 싱각호시고 탄 왈 문왕의 어마님은 문왕을 비에 계실제부터 혼일도 그릇한 일이 업서 성의로 싹그시니 나는 엇지 자식을 속임으로 갈르치리요 호시고 듯회 고기를 사더가 먹이시니 "는 즈식을 덩을로 갈으치심시오 일"은 밍지 글 비호러 갖더

[10]

가일지 아니호시고 집의 도라오시니 그 모친이 뵈를 바야 호로 쓰시터가 밍자를 보시고 뵈 가운데 버히시니 밍지 무르스디 엇지 뵈허리를 버히시니 잇가 모친이 답왈 이 뵈을 당초 의씨를 주아 쓰다가 허리를 버히니 전일 슈고논다 허신라 네 이제 그를 비와 일지 아니호니 네 그리이 뵈 가운데 버힘 갖튼지라 호신디 밍지 마암이 감동하여 즉시 서당의 가 공부를 극진이 하여 큰 선비 되시니 "는 자식을 잘 교훈호미오 장지 드신 후의 마춤 박그로 드러와 침방

[11]

문을 여시니 그 안희 옷 버숨을 보시고 극히 무례호시다 하여 그 안희를 너치려 호시니 그 어마님이 경척하여 왈 네 예모를 모르고 남을 엇지 칙망호난다 스름이 집의 들미 소리를 묻져 하여 그 안을 묻져 알게 호고 방의 들미 신을 분명이 버셔 노코 방 안의 소리 나거든 방의 들고 만일 소리 나지 아니호거든 드지 안이호며 출입의 분명호거늘 네 출입을 받게 못호고 안희를 칠거지악을로 칙망호니 "후는 싱심도 그러한 일노 칙망치 말나 하여 계시니 "난 자식을 은의로 갈

[12]

르치 심고요 쏘 도간이라 호는 스름이 나간 사이에 버지 왓시되 본디 간곤 하여 디접힐 거시 업는지라 그 어마님이 머리를 버혀 술을 사더가 디접호시니 그 버지 도간의 모친을 축히 너겨시니 그 자식의 형실을 알지라 도간을 천거하여 벼살 시기니 "런 부인은 즈식의 어진 버즐 일홀가 저허함이

라 또 치순의 모친은 치순이 나무 흐러 간 사이에 순의 버지와 차순 즉 멀
니 갓는지라 부를 형세 업스 손가락을 찌무니 순이 나무흐더가 흘런 마암
이 감동하야 즉시 도러와

[13]

그 벗을 더접하여 보니고 모친과 놀난 연고을 못자온 더답 왈 네 멀니 가
고 불을 형세 업서 손가락을 찌무리 네 마암을 놀납게 흡이라 흐신이 모즈
의 혈기 혼 가지오 부모 섬김으로 한가지라 이러흔 부인의 흐신 일을 볼진
디 엇지 남의 어미 되어 붓그럽지 안이흐리요 또 혼나라 왕능이라 흐는 스
롭은 흥우를 섬기더가 좃나라홀 버리고 혼나라의 도리가 혼왕을 섬기니 항
위 왕능의 어미를 가두고 왕능의 아들을 죄를 주어 명하여 왈 만일 네 아
비 도라오지 아니흐면 쥬기리라 혼디 왕능의 모친이 스즈를 불너 왈 혼

[14]

왕은 어진 님군이라 충성을 다하여 몸이 맛도록 섬기고 늘근 어미은 생각
지 말나 이왕 몸을 혼왕피 허흔 후의 엇지 괴로움을 생각하여 마음을 변하
리오 츠라리 니 죽어 즈식의 절의를 변치 말기 흐미 올타 흐고 칼을 썬혀
목을 질너 죽으니 엇지 착하지 아니리오 이가튼 부인은 녀즈 둥 장뷔라 이
럴진디 남의 어미 되어 맛당이 즈식을 이리트시 가르쳐 효즈 충신 되기 흐
미 울커늘 이제 부인으로 보진디 엇지 붓그럽지 아니흐리오 디강 이를 거
시니 귀 밧

[15]

그로 듯지 말고 곱히 생각하여 천운을 변치 말는 녀지되어 가당의 쓰즐 어
괴오지 말고 부모를 효양하야 동성을 화목하며 즈식을 가르쳐 감동하기 흐
고 즈식이 느가도 날이 저물거든 문의 "지하여 기다리며 날이 츠 음식이
식거든 다스기 하여 먹이고 혹 밤이 들거든 몸니 곤하여도 밤에 잠을 자지
말고 하늘게 축수하여 먹닐 음식과 낙을 장만하여 극진니 공경하면 그 자
식이 감동하여 부모의게 극진니 효도하난지라 부

[16]

모 어질플 먼저 하여야 그 자식니 본바다 은덕을 감동하난지라 옛날 제순
나라한 사름은 아비 날즉 죽소 엄이 혼자 닛썌 집이 간난하되 그 자식니
글을 심 쓰지 안니하고 식 길들리길을 조화하건을 꾸지저 왓 아비 읍소 집
니 가난하거날 네 같으침을 듯지 아니하고 니갓타니 어나날 글을 비화 네
몸을 닛타니리요 하시고 식을 죽니고 밭을 잡아 치니 순니 마음을 썬쳐 식
을 바리고 글을 힘쓰

[17]

니 큰 선비 되여 그 어미 죽근 후의 발상하고 치던 밭을 만지며 맛던 다리
을 붓뜯고 크게 통곡하여 불으지 "니 천지간 사람의 자식니 되여 모자간
정니 닛어한지라 지식을 열려서 잘 가라치지 못하면 잘난 후의 더욱 불민
하나니 고어의 닛너닛소 며날니난 침 왓쓸 제붓타 형실을 가라치고 자식은
말 비홀제붓타 가라치나니 이 교훈을 비후지 못하면 부모 형제를 모르고
욕급

[18]

하더나도 교훈을 잘 흐면 마음을 고쳐 착한 사름이 되고 불선교훈흐면 간
악한 사름이 되느니 즈식을 진실노 어진 형실노 가라쳐 집의 들면 부모기
효도하고 형제 우의하고 나가면 어른의기 공순하고 벗의기 신이 잇고 벼슬
흐매 임군의기 튕성이 잇기 흐며 어진 일흠이 세상의 빛나기 홀 거시니 혼
갓 스랑만 흐고 포식난의흐며 일거이 무괴면 금슈는 다름 업는디라 눈기와
예절을 엇지 알니오 부인의 즈식이 불효흠은

[19]

잘 가르치지 못흠이니 대방의 동성을 불너 경계하여 왓 네 남의 즈식과 동
성이 되여 어미와 형을 지성으로 섬기지 못하여 불효하며 화목지 못하니
네 죄 형과 갓탄지라 너 너를 위하여 천눈을 닛으니 자서히 드르라 하날은

아비요 쌓은 어미라 만물이 숨겨 날 제 그 가운데 스펀이 귀한 밧 자은 오
륜을 알아야 인의예지을 헿헿나니 금슈로 일너도 그거슨 슬보고 춤아 즐기
지 못헿며 쇼리를 듯고 춤아 그 고기를 먹지 못흙은 축헌

[20]

마암이라 금슈에게도 그러헿거든 헿물며 부모 동심의 마암을 불순케 헿리
오 췌와 슬이다 부모에게 타 낫스니 골육은 형제와 헿 가지요 희로의식을
헿 가지로 헿여 화목헿며 사형헿물 흙독게 헿면 부모는 그 가운데 자연 평
안할 거시니 네 남의 아리 되여 그 우흙 잘 섬기지 못헿는다 네 형이 부모
에게 불공헿다 헿고 관가의 고헿니 너 엿지 관원이 되여 엿지 도로혀 붓그
럽지 아니헿리오 님군의게 간헿는 시학 잇스면 나라이 망치 아니헿고 부유
징자면 불함무

[21]

레 헿고 형유징제헿면 불함불의헿고 사유칭우헿면 불헿기악헿나니 네 형이
불효의 당헿면 아모리 불민헿여도 기혹홀 거시오 혹 성니여 미로 쳐 피 흘
너도 원망치 말고 노기 풀이거든 췌를 타 극진히 공경헿여 간헿여 그른 마
암을 곳치게 헿여 그른 더 드지 아니헿게 헿여야 울커늘 차마 부모 동심으
로 헿여곰 남의게 죄인이 되게 헿는다 형제지간은 원이 업니라 형이 그름
을 헿헿거든 울고 간헿면 네 형이 엿지 간악한 계집의 혹헿여 하늘기 타
난 천성

[22]

을 일허 강상의 범헿리요 사름이 아모리 어리고 어두어도 남의 일을 보아
본밧기 쉬운지라 형 섬기〃를 아비 섬기는 듯헿면 아오 스펀헿기를 즈식
갓티 헿느니 형이 나가거든 날이 저물러도 오기를 기다려 헿 상의 밥을 먹
고 헿 즈리에 즈고 먹으나 입으나 헿 가지로 헿여 형제 화목헿기를 일삼으
면 무삼 스우나운 말이 관가의 미츠리오 익달다 너도 우리과 갓튼 스펀이
라 엿지 남의 일 보아 헿치 못헿는다 넷날 진서고라 헿는 스펀은 형이 벼

살혀 멀니 가고

[23]

업는지라 철복을 보너지 못하면 비록 극한이라도 오슬 입지 아니하고 제스를 당히미 신무를 보너지 못하면 그 음식을 먹지 못하니 "는 형 섬기"를 아비 갓치 하미요 또 강공이라 하는 스릅은 형제 스랑하여 혼 니불 속의 자더가 문득 밧기로 도적이 들러 죽이려 혼디 형제 서로 죽기를 닷도와 죽슈하니 그 도적이 감동하여 회치 아니하고 그져 가고 또 등빅도라혼는 스릅이 형은 묘사하고 다만 어린 자식이 인는지라 난세를 당하여 피란홀 시빅도는 독하를 업고 안히

[24]

는 즈식을 업고 가더니 도적이 급히 쌀로는지라 형세를 헤아린 즉 구전하야 스라날 길 업는들 알고 "히 기쳐 왈 적세 약차 티급하니 자질을 다"리고 가더가는 죽을 거시니 우리는 스라르면 중니 즈식을 다시 보나허 보련이와 죽혼는 죽으면 후시 업스리라 하고 니 자식을 바리고 독하를 다리고 가니 "는 죽은 동심을 위하미라 엇지 기특지 아니하리오 즈고로 착한 사름 즐거운 일과 착한 말을 조허 하고 한악한 사름은 간악한 일 효측하기로

[25]

불민한 사름이 되나니라 엇지 마암을 도로혀지 못하며 부무찌 효도할 들 모르고 형제 화목홀 줄 모르고 죽을 죄의 범하니 실노 이달다 니 빅성의 우히되어 빅성을 어진일노 인도치 못하니 엇지 붓그럽지 아니하리오 또 며 나리를 불너 경계하여 왈 네 남의 안히되어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지 못하고 미련한 지아비를 양당교특하여 부모와 동심을 이간하여 천지의 나세지 못홀 죄인이 되게하니 네 죄는 더욱 중한지라 또 너

[26]

자의 도리는 삼동지의 잇나니 어려서는 부모를 좃고 즈린 후는 지아비를
 좃고 늘근 후는 즈식을 좃나니 시집을 가미 시부모의 뜻을 거스지 말고 밤
 을 거든 침방의 나아가고 달기울거든 부모 즈시는 방문박쓰 가문의 육한
 고 몸이 가려와 흐시거든 쓸그며 병들거든 잡사울 것과 약을 디려 맛보아
 공경하여 드리고 쇠소는 디히고 부피 명쇼흐시거든 무락하고 밥을 먹다가
 도 비앗고 급히 디답하며 제스를 밧드러 정결히 바와 지극한 정성으로 도
 으며 가산을 드스리미 뜻을 순히

[27]

하며 승상 접하 흐야 가니 화평하고 화괴 용 " 하게 흐미 울커늘 엇지 부모
 를 공경치 아니하고 형제와 종족을 화목지 아니하여 니 몸의 화환이 밋게
 흐리요 넷 부인은 시부모 효양흐시던 횡실을 인하며 일오나니 즈셔히 들르
 라 넷날 양시라 흐는 부인이 " 시되 시도모 나히 구십이라 치이 업서 음식
 을 먹지 못하여 글력이 쇠진 하여 병이 즈연 김피 가는지라 그 부인 민망
 하여 조모를 저즐 먹거니 음식 먹지 못흐연지 슈연이 되여시되 피육이 녀
 상하고 글력이 강건하여 빅세를 사라시니 니는 세상의 드문

[28]

일라 사름이 다 칭찬흐였고 또 정시라흐는 부인은 가장이 도스하고 늘근
 시부모를 피시고 지너되 늘소 병들려 출입을 모흐였는지라 슈야로 시측의
 썩나지 아니하고 지너더니 일 " 은 모야무지간의 도적이 창검을 들고 드러
 와 사름을 희코져 흐니 서리갓튼 검광을 뉘 아니 겁흐리오 마는 부인이 도
 곱도 늘너지 아니하고 시아비를 안고 조용이 비러 왈 지 물은 가져가고 늘
 근 아비는 희치말고 가시면 도로혀 은혜 티산 갖고 덕이 빅골난 망일가 흐
 나이다 하고 잔

[29]

상이 익결하여 통곡하니 도적니 그 마암을 감동하여 조금만 지물도 가져가
 지 아니하고 그져가니 지금 거지 효뵤라 칭찬하고 또 니시라 흐는 부인은

일직 시아비 독고 시엄이를 피셔있더니 일 " 은 박씨 범의 드러와 시모을
물고 가니 그 부인이 범의 소리를 붓들고 손으로 범을 치며 우니 범이 쏘
흔 영물리라 그 마암을 감동하여 이석히 보다가 노코 가니 이러한 일을 볼
진디 엇지 무령치 아니하리오 쏘 빅시라 흐는 부인은 그 집 안히 지극히
사오나와 형제 간이 불화

[30]

하여 서로 보지 아니하연지 여러 히 되니 그 부인이 민망하여 가로디 동성
간 은이지정을 모르고 남을 조화하거 이와 형제는 부모씨 타나 하늘씨 품
슈흔 썸 " 험 정이 잇고 원망이 업나니 그디를 위하여 비나니 남이 귀한가
보라 하고 개를 죽여 슝에 죽엄 모양으로 묵거 가지고 모야무지간의 지
아비를 다리고 그 벗에 집의 가 " 만이 " 로디 마춤 신쉬 불행하여 니 죽
엄을 감초아 흔적을 모로게 하라 하죽 그버지 놀니여 같오디 니 엇진 말고
너 집의 두지 말고 밧비 갖지고 가라하니 그 부인

[31]

이 지아비를 드리고 동성의 집에 가 쏘 그 스연을 니르 즉 한말도 더답지
아니 하고 죽시 니러 그 죽엄을 가지고 그 후원의 올나가 무드니 그 제야
전일 글웃흔 일을 개 " 히 행복하고 형제 다시 사랑하여 혼집의 모다 살며
화동하니 이러한 부인은 쇼건이 너른 진라 불화하던 형제를 화목하게 하니
엇지 착흔지 아니하리오 제 집이 일곱 가지 가는 죄 잇시니 일왈 무자거요
이왈 불효거요 삼왈 음난거요 사왈 투기거요 오왈 도적질하면 가고 육왈
악질리 잇스면 가고 칠왈 동독의기 불화

[32]

하면 가나니 너는 시부모을 불공이 더접하니 너 칠죄 혼가지요 간사흔 말
로 미런흔 지아비를 아당하여 부모와 동성을 모로게 하니 그죄 두가지라
여러 가지 죄를 몸의 가지고 엇지 살기를 바러리오 쏘 네 즈식을 두어서도
즐겨 알아도 도로혀 업는것만 못하니라 어진 사롬의 즈식은 쏘흔 어질고

간악한 사람의 자식은 또한 간악하니 너희 부체니랴 텃하니 네 즈식인들
엇지 간악 자아니 홀니오 너 너희 형실을 본바다 너희게 또 불효하여 니러
흔 경상이 니실거시니 츠라리 엄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너의 목숨을 살너
두어도 즐

[33]

겨 말 나 너희 부모 동성은 소기려 니와 하늘과 나른 소기지 못홀지라 남
의 말을 동시 깨닫지 못하면 죄 맛당히 죽글지라 부디 마암을 썬쳐 착훈
계집이 되게하여라 또 디방을 불너 탄식하고 경계하여 왈 너도 또한 우리
와 갓탄 사람이라 부모 동성을 모르고요 망훈 계집의 말을 조츠 부모의 길
너 닢 은혜와 천륜을 모르고 혼가지로 타난 동성을 모로난다 급슈라도 가
마귀는 반포지의를 알고 범은 증상을 자바 조상에 제하고 슈마다리논 고기
를 잡아 조송의 제하니라 천지 간의 스름이 되고 부무를 모르고 동성을 아
지 못하 문 엇진 말

[34]

고 진실노 그러하면 천변도 잇시런 이와 국법은 스정이 업는지라 또 법이
삼천 가지로디 부모 섬기는 법은 자천자 달러사서 인히 일체라 사람의 부
모되며 갓부지 아니하며 또한 괴롭지 안이하리오 너 몸을 나호시미 길너
넢 은혜를 생각할 진디 엇지 다 증양하리오 슈티하여 계실디 예둥훈 병든
스름 갖치 더 온 알도 촌발람미 슬코 찬닐도 담 " 하며 도흔 음식이라도 마
시업고 아모리 도흔 일이 잇셔도 회복할 일을 생각하면 망연하고 술지던
모미절 노뵈러 하고 곱던 양지

[35]

점 " 겹어 가고 안지면 일기 실코 누우면 줍즈기 편치 아니하고 괴운이
점 " 쇠진하여 압푸며 괴로움⁸⁹⁾이 만흔지라 집이 간곤하면 괴로움을 이기
지 아니하고 혹 알들이나 " 홀가 윈하며 산월이 당하여 회복할 제 죽을 마

89) '괴로움'의 오기

얇이 잇고 살 마암이 업고 귀운이 진혀여 인사를 모르고 죽은 스름 갖치
힐난혀더 가나흔 즈식의 얼굴을 보면 천금 보비를 어듬것 혀여 깃부고 마
얇이 그저 업는지라 또 아히 뉘인자리 져그면 마르디 움겨 누이고 그 어미
져즌디 누으며 혹 상홀가 혹 병들가 염네혀여 점 ” 잘 리

[36]

미 웃는 양을 보면 즐거운 마암이 그지 업고 우는 소리를 드르면 가슴이
미여지는 듯혀며 혹 병들면 비곱흔줄 모르고 긴 ” 밤의 줍이 업고 음식이
마시 업서 알는거슬 밧고와 말하지라 혀며 나히 심세 너무면 즐거운 마
이 둘디 업고 즈식이 혹 나가면 낮과 밤의 이질디 업고 오만 날이 당혀면
앗침부터 기다리며 즈식의 소리를 드르면 즈식은 질기지 아니혀도 부모
는 즐거운 마암을 금치 못혀여 도로혀 울고 져혀며 드러오면 문져 낮빛홀
보고 반겍고 깃부기 축

[37]

양 업고 집이 가난혀여 궁기며 입 죄지 못혀면 불송흔 마암이 그지 업서
살이 무여지난 듯 가삼이 터지는 듯 혀나니 엇지 이러흔 부모의 은덕을 일
만 번 주근 들엇지 다 감사오리요 이달다 디방아 너도 부모 아니면 어드로
셔 엇지 즈라장성혀여 시리요 부모를 이즈면 니 몸을 바리미라 몸을 이지
며 사름이 아니라 이달다 디방아 엇지 부모 등흔줄를 모로는다 스람이 혀
날과 운을 품슈혀여 숨겨나니 ” 러혀 무로 세월이 사시 잇고 사름의게 스
단과 오류이 잇스니 자셔이 들으라 부자유턴혀고 군신

[38]

유의혀고 장유 ” 셔혀고 부류유별혀고 봉우신이 잇시니 갈오디 오류이라 오
륜을 모로면 즉 근어금슈니 혼 번 들으디 김피 심각혀여라 숨천가지 형실
이 구전혀면 성인이요 형실을 비화형혀면 쏘흔 현인 군지라다 괴득하여 후
세에 알게혀여시되 사름이 그더로 못혀면 물욕의 소페라 삼천가지 형실 중
의 부모 섬기논 형실이 옷듬이라 즈식되논 즈은 계초명 이어든 함관슈혀고

적 부모 지침 쇼하야 문의 육한하고 음식을 맛 보아 잡삼기 하며 의복을 보슬페 씨 못

[39]

거든 씻고 히여지거든 곤치고 씻을 지극히 바다 막암이 깃부게 하여 혹 걱
정하는 일 계셔도 괴식을 온순이 하여 마암을 순하며 혹 나가도 간는 고들
일외로 도러올 날 지나지말며 혹 부형 엄숙하여 꾸지람 하셔도 귀 밧그로
듯고 씻을 소기난 즈는 사름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올흔말노 깃부기 하며
조곰도 부모 소기는 마암을 두지말고 혼 거름과 혼 말삼도 지극 공손하여
야 즈식의 도리라 만일 부모를 그릇 섬기면 법이 업고 츠나니 업나니 늘근
의 말이 츠려 업서 들림즉 안니타하 하고 부무의 뜻을 거스려 듀식

[40]

호강으로 다니며 부모는 긴 밤의 춘 즈리에 기드리는 줄 모르고 임의로
방탕할제 그 안히 승정성의로 시부모를 심각하리오 이달다 네 나무자식이
되어 부모 중흔 줄 모로는 다 스름의 목숨이 혼이잇시니 부피 문득 세상을
바리시면 즈식되는 지 뉘 아니 망극하여하며 부모의 얼굴를 어디가 다시
어더 보며 길너넌 은혜를 어지 다시 갑흐리오 부모를 지극 공경하면 효성
으로 섬기면 빗난 일흠이 세상의 남의 선성이 되는지라 슬프다 디방아 조
흔소리와 맛있는 음식과 고온 의복을

[41]

조허하고 부모 섬길 줄 모로니 춤아 스름의 형실이 그러하야 너를 위하여
남의 효자 되인 스름을 니를 거시니 즈셔이 들으라 넷날 순 님군이 그 아
비 고쉬 부완 모은하야 전실 아들 순을 죽이 고저하여 순 다려 일오디 집
우의 올으라 하시니 죽끝줄 알고 갓두입홀 가지고 올나가니 집 사면의 부
를 노흐니 불이 일시의 일어나 화광이 창천 하는지라 순이 가졌던 갓두입
홀 양편의 들고 뛰어나려 살라 나시되 원망하시지 아니하고 그 후의 또 순
으로 하여공 움물 파라 하시니 쥬기려 하는 줄 알고 쌍을 파

[42]

되 겹 궁을 팻 써이니 과연 움물을 급피매 오고 싱각호되 반다시 죽도 다
하니 후체 아들 상이 마암의 깃거호여 갈오디 모기도 굳은 함아 적이니 창
늪 부모요 우 양부모요 금집이요 저집이요 이슈난 서치집서 호리라 호고
형의 궁의 들러간 즉 순이 밭서 살러와 안즈는 지라 상이 붓그려호되 순은
더욱 온화이 호여 낫셋을 꺾치지 아니하고 아버를 위로호며 공경함을 극진
히 하니 그러 호무로 어진 일호미 스희의 진동 호엿는 지라 그씨에 요님군
이 어짐을 알고 천거호사 천하를

[43]

맛기시니 천지 되신지라 그러 호무로 스릅의 어진 일홈이 부모 섬기 " 예
나타나는 이 남의 일을 보고 들을 진디 엇지 저 갖치 못홀소냐 저 죽이려
호던 부모 동성도 저러듯 공경호여거든 너는 극히 사랑호는 부모 섬기 " 는
성인으로부터 부터화락호여 부모의 마암을 평안케 호여 호 되라 호고 조흔
음식을 봉양호여도 부모의 마암을 평안치 못호면 불효를 면치 못호나니 이
러 호무로 부모를 잘 섬기느즌 남 뉘뉘 일홈이 후세에 유전호고 친척과 인
인이다 사랑호고 귀신 좃차 돕는지라 네 엇지 소견이 어두운 밤 갖호여 저
갖치 못호난다 둥간 그릇호

[44]

마암을 버리고 축헌 마음을 머그면 비컨디 어두운 방의 불협 갖호 지라 천
성을 도리오지 아니호는 스릅은 성인이요 흐린 마암을 씨뎛는 스릅은 쏘호
성인이라 너도 마암을 씨다르면 현인군지 되기 무어시 어려오리요 옛날 진
션이라호는 스릅은 훗처의 호호여 진션을 살무려 하니 그 아비 명영을 거
스지 못호여 삼 길 마암을 두엇고 위빅이라 호는 사릅의 익비는 후처의 호
호며 위빅을 니치니 빅이 원망치 아니호고 스스로 하날게 죄를 어뎛 노라
호고 엄동설한 이면 마암

[45]

을 죽칙혀여 그 회포를 거문괴 곡조의 울녀타다 가물의 빠즈 죽으니 "런 슝름은 부모 중헌줄 알고 부모를 원망치 아니혀고 무른의 빠즈 죽음을 헤 지 아니혀니 저 죽기려던 부모도 원망치 아니 혀여 거든 사랑하논 부모를 엇지 공경치 아니혀논다 만일 네 즈식이 잇서 너늘 불순이 더접혀며 네 마 암의 응당 분할 거시니 그 마음을 역지사지혀여 보면 엇지 씨닷지 못혀리 요 쏘 간이라 혀는 슝름은 하라비 늘고 병 드럿난 지라 간의 아비 간으로 혀여곰 저더가 바리라 혼디 원간이 암의 말을 거스

[46]

지 못혀여 하라비를 지고 갖더가 강의 당혀여 그 남누 한 오슬 씨어 입피 고 알오디 니 일피시의 도러올 거시니 평안이 계시 압소셔 혼디 그 하라비 울며 왈 네 아비 무승혀여 나를 니 여버리라 혀여시니 엇지 네 마암으로 오기쉬으리요 혼이 간이 혀늘을 울러" 통곡혀고 그 한아비 지고 갖턴 지 기를 가지고 도러가니 그 아비 더경혀여 꾸지져 왈 그 흥헌 지기를 무어세 쓰려 혀고 가져왔논다 원간이 더왈 엇지 쓸디 업다 혀나 잇가 아바님께 전 혀고 저혀여 가져왔나 니다 한아반님 늘거 계시다 혀고 너여 더

[47]

가버리라 혀엿 스오니 아바님도 늘근 후 먼 니 쏘헌 자식을 씨겨 저더 가 버리올 거시오 니니 지계를 간직혀여 두끄 자손의게 전코저혀여 가져 왔나 니다 그 아비 그 말을 듯고 묵" 반향의 생각혀더가 낮 빗출 고치고 왈 늘 근 휘변 다 니러 혀리로 다 혀고 그 아비를 도로 다려다가 지성올로 공경 혀여 효지되엿시니 더져 슝름이 모로더가 남의게 축헌 말 듯고 씨닷기를 일럿 트시 흘거시라 만일 씨다른직 뉘 효자충신이 아니 되리오 익달다 더 방아 당쵸 발근 거울이 봄의 여도 쏘

[48]

그면 말그니니라 비록 가난 혀여도 정성이 지극혀면 복이 도라오고 삼오라

온 형실을 흐면 양화를 면치 못흐나니 남의게 춤밧는 욕을 면흐면 가오면
스름의기 빅비나 " 온지라 즈고로 어진 사름 듀려 죽은 일 업고 스오논은
스름 부귀흔디 업느니라 자고로붓터 노순이 흥흐시던 덕을 공미이 " 오서
현성지도올 가로쳐 계시니 눅고 눅흔 지 죄 천하의 못미출되 업느니라 익
달다 스름이 적고 적은 거슬 일흔 즉 츠슬줄 알고 하날기 품슈흔 막암은
일허도

[49]

츠슬줄 모로니 엇지 붓거렵지 아니흐리요 네날 광계라흐는 스름은 집 가난
흐여 늘근 어미를 드리고 도श्यक을 계유 장만흐여 노흔직 손지만 논하쥬고
잡삼지 아니흐물 보고 민망흐여 그 안희외의 손흐여 왈 이 자식을 두시면
늘근 부모를 봉양도 못흐고 병 환이나 실 듯흐니 우피는 스라시면 다시 즈
식을 보려 니와 부모는 업스면 후의 어디가 다시 보리오 니 자식을 쌍 회
파 무드리라 흐고 그 자식을 다리고 무인 지경의 가 쏙 흘푼더니 문득 큰
그르시 잇거늘 괴이히 너겨 널러보니 그르시 가득흐엿고 쏙 그

[50]

를 써시되 공간도 앓지 못홀 거시오 다른 스름도 가지 " 못흐리라 흐여겨
늘 부체 서로 같오되 어는 하늘히 주시미라 족히 독히 부모를 봉양흐리라
즉시 자식을 다라고 도라와 금을 푼라 부로를 효양흐여시니 사름이 부모의
계 지극 효성흐면 보옹지되 잇슬 거시어늘 너를 불진디 엇지 윤기 잇다 흐
리요 쏙 양흙이라 흐는 스람이 그 어마님이 물고기를 항상 질기논 지라 락
양 고기를 잡아 봉양흐되 고기 잡는 물이 머리 왕니 자연 날슈들 허비흐는
지라 상히 민망흐여

[51]

흐날거 비러 왈 자식의 불효를 면케 흐 읍소셔 흐고 괴로움을 헤 아리지
아니흐고 다니더니 일 " 은 후원의 예 업던 움물이 나며 고기가 득흐엿는지
라 그 후로붓터 그 고기를 줍아 모친기 봉양흐여시니 그런 일노 불진디 불

초흐미 엇지 붓그럽지 아니호리오 쏘 목난이라호는 스흘은 어미 일즉 죽고
업스미 " 일 설워호여 엄의 얼굴을 남피 사겨 두고 스라 실제 갖치 섬기더
니 문득 마을 스흘이 보고 왈 이거시 집의는 유익지 아니 혼거슬 두고 위
한다 호고 희롱호여 미양 치며 칼로 지르니 피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 지라
목난

[52]

이 드리와 보고 망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호여 지극 의통호고 관가의 정호
여 시니 남그로 사긴 어미도 이러 트시 위호엿거든 슬프다 디방아 너는 엇
인 스흘이 완디 어미를 아지 못 호고 간교한 네 집의 괴혹호여 하늘이 정
호신 철윤을 바리는다 쏘 멩둥이라호는 스흘은 아비 병 드리 죽순을 먹어
지라 호여도 동절을 당호엿는지라 죽순 어들길 업서 디맛회 드러가 통곡호
고 하늘피 특슈호니 문득 죽순이 느거늘 썩거다가 병든 아비를 먹여 살엿
고 왕싱이라호

[53]

는 사름은 어미 병 드리 니어를 먹어지나 호되 동절을 당호여 물이 합빙
호엿는지라 니어를 어들 길 업서 강물의 가 어름을 두다리고 축슈호니 문
득 어름이 썩여지며 니어 썩여는지라 갖다가 병모를 먹여 회싱호엿시니 엇
지 축지 아니호리오 디져 이런 스흘은 본디 효성이 지극호여 감 천지니라
천디 간의 사름이 남의 어진 사름의 짜히는 살기를 저마다 원호고 악한 사
름 사는 썩 희든 살기를 불헿 타 호

[54]

느니 니 맛당이 너를 가르쳐 불효들 먼치 못호면 니 엇지 평안호리오 너를
어진 일노 인도치 못호고 형벌노 다 사린 즉 네 미련호고 어두온디 싱각지
못호면 뉘 사름으로 보리오 진실노 썩다르면 네 들 사름이 아니라 텃디만
물 등의 유인이 최귀호니 사름되인 후의 부모 구경호면 귀호고 부모계시면
섬기다가 거상을 닦으면 귀타호느니 이 세가지 귀호물 두면 착한 사름이라

인간의 턴년 부모 업느니 이러 흐물로

[55]

성인이 거상흐시미 극히 예문을 지어니여 계시니 부모의 거상을 넘을제 부모 중흔줄 아는 사툼은 죽길를 헤 아니지 양흐고 부모 중흔줄 모르는 슝은 남의 일본쎄 흘가 두려흐여 예문을 지어 니여 계시니 자셔히 드르라 부모의 초상을 당흐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흐고 쎄히 쎄혀지는 듯 흔지라 날 빛치 업고 오장육뵈 쎄혀지는 듯 망극흔 둥의 무슴 다른 싱각이 이시리오 일가 친척과 모든 빈각이 예절 아는 사툼을 가희여 듯소 상을 맞겨 예문의 지너지 아니흐고 흐느니 만일 그릇흐면 니

[56]

몸이 맛도록 뉘우치미 잇는지라 초흔흔 후의 물기흐믄 죽은 사툼의 혼빅이 죽시 표산치 아니흐면 혹 쎄여느는 일이 잇다흐여 초흔흔 후의 물기 흐미 오 압의 축광의로 사싱을 결단흔 후의 빨상흐미 극진흐미오 의복 입피기와 더소렘이며 님관 제절을 극진이 흐여야 뉘우치미 업고 성북후의 조석 곽 흐기는 부모 싱전갓치 조석 문안시오 상식을 정비히 차혀 싱전가치 흐며 도흔쎄흘 가흐여 안장흐되 하관 후 폐빅을 드니고 하직 흘제

[57]

망극 이통흙은 천만연의 다시 뵈압지 못흐느니 별이라 남의 자식이 되여 엇지 정성 업시리오 치상절차와 삼년 몽상흐는 예절을 즈셔히 드르라 거상 입는 오슬 최복이라흙은 마암의 죄중흐미오 제복 압히 최뵈치기는 부모의 은혜을 일시도 잇지 말과 저흐미라 등외 부관 뵈치기는 쏘흔 부무의 은혜을 등이지고 잇삼시오 상장 집기는 가슴의 뵈쳐 초토의 글녁이 쇠진흐고로 몸을 의지흐게 흐미오 쉼포로 의복흙은 흐늘기 죄를 어더 죄를 표흐미오 방입 쓰기는 하늘 보지 못흐게 흐미라 음식 먹기도 성북 후의 죽을 먹어

[58]

몸을 부지케 흐미오 장사 후의 비로 소밥을 물의 노하 먹고 소귀를 지닌 후의 실과를 먹기하고 더상을 지닌 후의 비로쇼 마른 고기를 먹고 담스 후의 술과 육장을 먹어 부모를 중히 너김이라 슬프다 더방아 너는 일이 흐는 줄 모르고 네 아버 죽어도 설워 아니하고 마암을 방탕이하여 남이다 그르다 흐되 씨닷지 못하니 천지 간의 용납지 못 할 죄인이라 살기를 엇지 바리리요 또한 네 자식의게 양화미치리라 남의 말을 씨다르면 효자될 거시오 남의 선승

[59]

되고 그랬치 아니하면 천지간 죄인이라 니 너를 인의로 가르치고 형벌을 쓰지 아니하는 네 모를 중히 너기미 안이라 니 괴로이 경계함은 흑씨다를 가하여시니 엇지 붓그럽지 아니하리오 스펀이 회미하여도 씨다르면 스펀이라 네 물욕의 관계하여 그러하거 이와 마암을 도로혀 면어진 스펀이 될 거시미 기유하여 경계하니 깊히 생각하여 마암의 두고 버리지 말나하신디 " 방의 부체 넷 스펀의 일과 경계하시는 말씀을 듣고 머리를 조으며 눈물을 흘리고 죄를 청하거늘 죄를 추지아니 하시다 슬프다 어두운 스펀도 씨닷기 이렇

[60]

투스니 엇지 알람답지 아니 하리오 더방이 이후로 붓터 천성을 홀연히 회복하여 왓 이달다 슬프다 엇지 이전의 마암이 그러 하던고 부모 안니면 니 몸이 어디셔 낫시며 사라났스리요 부모를 생각지 아니함은 니 몸을 바림이라 하고 스"로 자책하여 모친 섬기"를 극진히 하고 형제 우익하기를 지극히 하니 보는 스펀이 감동하여 다 칭찬아니리 업더라 더방이 급한일이 업스면 모친 것흘 썬나지 아니하고 음식과 의복을 극진이 장만하여 성기니

[61]

어미도 그 정성을 괴특이 여겨 더욱 스펀하니 집이 자연 화목하여 본밧기를 원하며 그 안히 간악한 계집이 또한 관원의 말을 감동하여 축헌 부인의

항실을 본바다 전일 그릇헌 거슬 주야로 추회하며 허물을 즈척하여 시부모
섬기”를 지성으로 하며 농스과 길습을 일습아 부모를 밋드니 디방의 부체
부모의 효성헌는 말이 원근의 진동헌더라 그 어미 죽은 후의 거상을 지극
히 하여 더욱 설위헌 하니 뉘 아니 칭춘헌리요 디방의 효행이 스방의 버러
시니 관원이 괴특이

[62]

너겨 나라희 계달하여 효조를 봉헌니 엇지 빗나지 아니리오 원근 스름이
디방 좃기를 원헌더라 습습을 지닌 후의 나라 희셔 디방의 효행을 괴특이
너기스 그 궤희 석물하고 그 마으를 붓호호시고 즉시 디방을 벼슬노 부르
신디 사양하고 안이 아니 헌는 지라 그 고을 원이 과만이 당하여 그 고
을” 바리고 도라가 문득 병을 어더 세상을 바리시니 디방의 부체 망극하
여 통곡하고 선성 네로 습년 거승을 입으니 그 망극헌 마암이 부모의셔 지
너지 아니 헌더라 습년 지닌 후의 그 안

[63]

희 양시 슈티하여 십삭이 당헌 후의 회복헌니 남지라 인물이 준수하고
점” 즈리미 총명이 과인하여 헌 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알고 십세를 당하
여 문장이 되니 엇지 하늘이 감동치 아니헌리오 효행과 동니 군즈의 품치
잇는지라 조정이 알고 나라의 드르스 특별이 강능 영을 하시니 마지 못
하여 도입헌 후의 빅성을 더 화로 다사리니 빅성이 명정과 늑흔 효행을 추
존아니리 업더라 이러 헌무로 산무도적하고 도불습유하고 야불폐호하고 빅
성이 강구의셔 격양가를 부르더

[64]

라 슬프다 남의 일을 불진디 엇지 아람답지 아니헌리오 하늘이 스름을 너
시미 말근정 괴를 투는지 아니헌미 업건마는 즈란 후의 물욕의 줍기여 분
성을 바리거든 엇지 부모를 알이요 췌치물 불진디 아모려도 디방과 갖치헌
면 엇지 아람답지 아니헌리요 강능 년의 잇더니 우연 득병하여 벼슬을 스

직하고 " 향의 도라와 들져 아들을 안으니 년세 이십팔 세에 또 원장 급제
하여 자스 벼슬하니 일시에 문호 혁 " 하여 누아니 칭찬하리오 치민정과 나
라 받드는 충성이 지

[65]

극하니 더욱 괴특이 너져 칭찬하시더라 슬푸다 디방을 본바다 즈손의계 전
하면 벼슬도 뚝떨거시오 어진 일흠도 세상의 유전하리니 엇지 아람답지 아
니하리오 즈식이 효행할 마암을 두거든 그 부피 잘 인도하여 효자되고 잘
인도하지 못하며 불효되나니 엇지 두렵지 아니하리오 부모의게 효도하고
일가의 화목하고 빈궁을 구급지 하고 미스를 극진히 하면 어진 일흠이 후
세의 유전하리니 슬푸다 후성이 " 글을 보고 감동하여 정성을 갈진히 하여
본바들 지어다

<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Precedents of
<Jindaebang-jeon>

Jiang-HaiQ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atus of <Jindaebang-jeon> has been investigated as a total of 175 manuscripts, including 150 manuscripts, 7 hard editions, 2 Anseong editions, 3 unconfirmed Banggak manuscripts, 10 old printed, 3 Chinese manuscript manuscript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arliest and most explicitly revealed version among them was the 36 Jangseogak vers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earliest and most explicit period of formation of this version was in 1857, it could be reasonably estimated that the creation of this work was around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36 chapters of Jangseogak, and through these copies, the Chinese historical records accepted in <Jindaebang-jeon> were 25 cases in total, including 9 cases related to the wise mother, 3 cases related to brotherly friendship, 4 cases related to husband and wife, and 9 cases related to filial piety. am.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ults of a comparison of the total number of accepted historical histories for <Jindaebang-jeon>, 36 hard plates, 28 hard plates, 16 Anseong editions, and old printed published by Shingu Seorim,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se copies of <Jindaebang-jeon>, were compared. Compared to the other versions, the 36 chapters of the major emphasize the discipline of the mother's admonition the most, and in the case of Jindaebang's admonition, the frequency is the lowest compared to the other versions that were investigated.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36 chapters of Jangseogak, it could

be seen that a great weight was placed on self-discipline among the contents of the narrativ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ceptance pattern of <Jindaebang-jeon> and its meaning, the case of Confucius and King Lu revealed the importance of discipline and education rather than legal punishment for infidelity. and clear purpose. Next, the acceptance of nine cases related to the wise mother revealed that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nflicts between families and the infidelity of children were entirely in the woman who failed to properly fulfill the role of the mother through a patriarchal perspective. And the acceptance pattern of the test related to brotherly love showed that the problem of family discord was not of great importance. In particular, through the acceptance of 9 cases of filial piety and 4 cases of great wife, it was clarified that the root cause and responsibility of family discord lies in the absence of the role of a great wife and infidelity. It was clearly shown that the solution also lies in the restoration of the role of wise mothers and the practice of filial piety.